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0 1982년 10월 1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October 11, 1982

OCT 1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회장 선거 11월로

장·함 후보등 거론되나, 아직은평온

"토론토교포 5백명만 잡아라"

이것이 오는 11월27일로 내정된 제18대 한인회장선거 후보자들의 목표이다.

8일 현재 아무도 자기회장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없으나 자천타천으로 교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후보 물망인사만도 상당히 많다.

등록마감일인 오는 27일 하오5시가 돼어야 알겠지만 의외로 후보들이 많이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 16,17대 한인회장은 6개월, 1년3개월짜리 단명회장이었고 회장선거의 열기도 없이 각각 단독출마, 강우석회장(16대)과 현 한인회장 박인순씨(17대)팀(부회장 고순복·장영채)이 무투표 당선됐다.

14대 회장이었던 조한철박사는 "단독출마라는 것은 좋지않다. 여러명의 후보가 나와 경쟁하는 것이 한인회라는 존재를 더욱 인식시키고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들로서도 바람직하다"면서 회장이 되는 사람은 "명예욕을 버리고 자기봉사와 희생을 각오해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장후보물망에 오르는 코리아타운번영회장 장순채씨(아리랑식당경영)씨는 8일 "주위의 권유는 있으나 아직 회장출마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서울올림픽 후원회장 함의현씨등의 후보출마설이 끈질기게 도나 공개적으로 후보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 회장후보들을 아직은 관망상태로 눈치작전을 하면서 부회장 후보등을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민들은 금번 한인회장선거가 종전처럼 단독출마, 무투표당선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한다. 비교적 한인사회의 동정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교민 C씨는 몇몇 인사들이 후보등록을 고려하면서 표를 타진중이며 적어도 2팀은 출마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려면 부회장후보2명과 팀을 조직, 30명이상의 회원(회비납자)의 추천을 받아 1천달러를 공탁해야 한다.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소지자로서 한인의 혈통을 가진자 라야한다.

금년부터 회장선거방식은 바뀌어 11월27일까지 금년도 한인회비 20달러를 납부한 한인들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된다. 선거도 일정한 시간보다 선거당일 한인회관에서 상오8시부터 하오9시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7일현재 회비납부자 385명과 앞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7백명을 잡아도 기권할 수를 제외하면 5백명선이 당락을 기준할 선으로 보고 있다.

금년도 한인회장선거를 주관하는 김문량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방식이 바뀐데 대해 "회비를 납부한 교포들이 한인회의 참여의식도 많고 회장후보들이 측근들에게 회비납부를 독려 한인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1965년 2백명의 교포들이 있을때 한인회를 창설, 초대부터 5대까지 회장을 맡았던 윤여화씨는 8일 "한인회발전의 열쇠는 교민들 스스로가 쥐고 있다"면서 "한인회는 교민사회 여러단체와 융화 협조하는일이 급선무"라고 차기회장단에 당부했다.

한인회칙 개정안 상정

정원 60명, 이사회 권한늘려

한인회장선거를 한달앞둔 한인회이사회(이사장 함병섭)는 회장선거방법등을 확정짓고 이사정원증원등 한인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총회에 상정했다.

지난 30일,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 회칙(정관)개정안에 의하면 현행이사수를 30명에서 60명으로 늘이고 이사분담금등을 회칙에 못박아 한인회재정을 돕는 위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사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차기회장선거후 선출될 이사선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8명 집행부회장단 3명으로 되어있어 (현재 이사3명 회장단 3명) 이사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게됐다.

이사수의 증원이유에 대해 함병섭이사장은 "한인회의 재정을 돕는 목적과, 정관제정당시보다 늘어난 한인수를 고려한것이다"고 말했다.

이 새 개정안은 내년 1월로 예정된 한인회 총회에서 통과를 보아야 한다.

한승회 김포서 구속

미스서울은 귀국거부

(서울7일=연합)미스서울 이유정양을 미국으로 납치, 폭행한 혐의로 당초 미국경찰에 구속된 한승회씨(28)는 7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짜여권으로 밀출국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가짜여권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혐의로 콜로라도의 한법원에 기소된 한씨는 지난주말 미국당국에 의해 샌프란시스코한국총영사관에 인도되었다.

콜로라도법원은 경찰의 납치혐의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대신 가짜여권혐의를 유죄로 인정, 한씨의 추방을 명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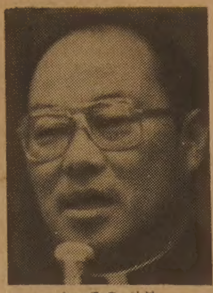
한국법무부는 한·미간의 범인인도협정이 없지만 미국당국에 대해 한씨와 이양의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양은 귀국할 경우 한씨가 보복할 것이 두렵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에 되돌아 가기를 거부했다.

고종옥 신부 LA로

한인사회의 거목

토론토에서 13년 재임



◆고종옥 신부

14년간 토론토한인천주교회를 맡아온 고종옥(마태오) 신부가 10월31일자로 이임, LA한인천주교회로 전출한다.

고신부의 후임으로는 현재 캐네디언성당 보좌신부로 있는 최규식 신부이다.

한인천주교회 보좌신부를 지낸 최신부는 11월 부임한다. 고신부의 LA 전출은 자원에 따른 파견근무이며, 소속은 계속 토론토 대교구이다.

LA에는 현재 5개의 한인교회가 있으며 고신부가 맡게된 교회는 신자 약60명의 개척교회인것으로 알려졌다.

고신부는 지난 69년 몬트리얼로부터 토론토로 전임, 74년7월 세례자 성 요한성당(던다스성당)을 단독소유로 인수, 토론토 한인천주교회를 북미주 한인본당중 유일한 자체성당 소유본당으로 있게 한 장본인이다. 고신부를 주임신부로 한 한인천주교회는 10여년 동안에 신자수가 2만5천명으로 급증, 80년10월 1300여명 수용의 큰 성당 쎄인·폴성당으로 이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이 굵고, 항상 진취적 개척정신에 투철한 고신부는 다시 가톨릭회관 건립을 추진, 토론토 중심부인 던다스·이스트와 팔러먼트 네거리에 자리한 현 대전회관을 구입, 내부를 완전 개조하여 다목적 회관으로 만들었다.

토론토한인천주교회뿐 아니라, 고신부는 재임기간중 런던(71년), 벵쿠버(75년)에 한인본당 창설을 주선, 실현시킨 공도 크다.

1930년 경기도 개풍(개성근방) 출생, 해군및 해병대 근무중 6.25참전으로 부상당한 일도 있으며, 57년 가톨릭대학 철학과 입학, 58년 프랑스 낭시(Nancy) 신학대학 유학, 63년 졸업과 동시 신부로 서품, 65년 오타와의 도미니코수도원 신학원 수료와 동시 몬트리얼의 쎄인 루이스성당(프랑스계) 보좌신부겸 교포지도신부로 활약하다가 69년8월 토론토한인성당 주임으로 전임, 82년 11월 LA로 전출케 됐다.

토론토 한인사회에 있어 고신부는 단지 교회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공식이민 초기부터 새 이민교포들의 정착에 기여했다.

고신부는 또 71년 캐나다 한인최초의 연방 복합문화성 자문위원으로 임명받아 한인의 복지향상, 한국문화 보급등에 활약이 컸다.

문학가로서의 고신부는 장편소설 3권, 꽁트·수상집 1권을 냈으며, 금년중으로 또한권의 저서가 나올 예정이다.

토론토 한인사회에 대한 고신부의 마지막 선물은, 한인양로원 건립기금 모금행사의 하나로 지난 2일 써니브룩공원에서 실시된 보행마라톤에 참가, 최고 모금($2,478), 최다 스폰서 획득(253명)의 2관왕이 된 봉사였다. 이것은 모금 2위의 천중환씨($2,255)보다 $223 더많으며 스폰서 2위 이웅일군(110여명)의 2배를 넘는 숫자이다.

후임 최규식신부

캐나다서 서품받은 첫 사제

◆최규식 신부

고신부의 후임 최규식(41세·그레고리오)신부는 캐나다에서 사제서품 받은 최초의 한인신부로 76년 9월25일 그가 학업을 마친 성 어거스틴대신학교 (2661 Kingston Rd., Scarboro.) 성당에서 프랜시스·알렌주교 주례로 사제에 서품, 한인성당의 보좌신부로 근무했으며, 몬트리얼 유학, 토론토 배인성당(빅토리아파×웰스예어 남쪽)에서 보좌신부로 근무중 이번 전임케 됐다.(본보 전신 〈캐너더뉴스〉 76년9월6일자 참조)

박병도 신부(69.2~8), 고종옥 신부(69.8~82.10)에 이어 한인본당을 맡는 최신부는 64년 서강대학을 거쳐 68년 필리핀의 아테네오·데·마닐라대학교(철학과) 졸업, 72년에는 미국 세인트·투이스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74년 시카고 예수회대신학교 수료, 74~75년 토론토대학교의 Toronto School of Theology(St. Augustins Seminary)에서 신학과정을 수료후 캐네디안성당인 세인트·존스에서 1년간 사목을 실습하고 토론토한인성당 보좌로 부임했었다.

고·트랜짓 오샤와, 해밀톤까지

온타리오정부는 7일 8백만온타리오주민의 약50%에 혜택을 줄 36억달러규모의 새로운 통근기차 노선(Go Transit)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짐·스노우 교통·체신장관이 이날 밝힌 장기계획에 의하면, 첫단계로 고·트랜짓·레이크쇼어(Go Transit Lakeshore) 선상의 현재의 오크빌터미날을 해밀톤으로, 피커링터미날을 오샤와로 각각 연장한다.

온타리오정부는 오크빌터미날에서 해밀톤까지 철로를 연장하는데 2억5천2백만달러, 피커링에서 오샤와까지 연장하는데 1억6천2백만달러가 각각 소요되며 완공하는데 3년내지 5년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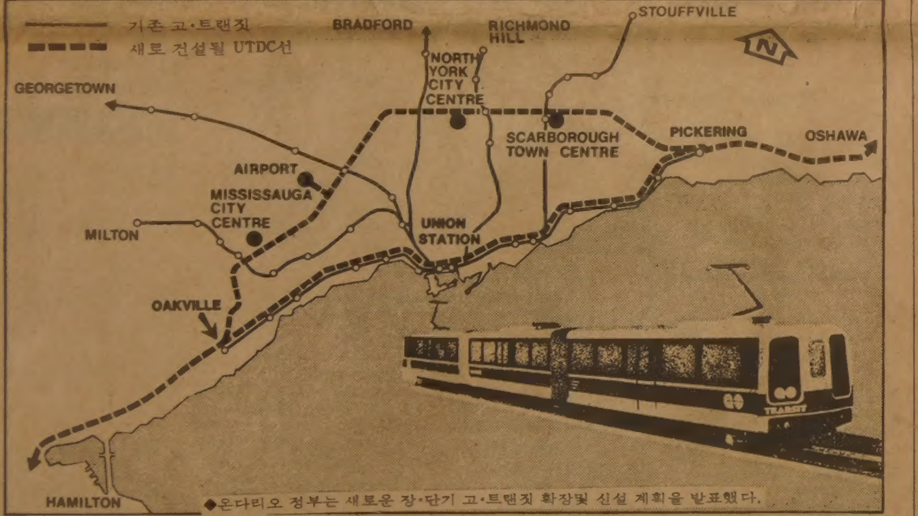
이공사가 건설되면 새로운 연장노선에는 새로운 지하철형의 전동차가 운행될것이나 승객들은 피커링과 오크빌에서 내려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기차로 갈아타야 한다.

폴·가드프리 메트로·토론토의회 의장은 이계획이 의욕적인 것이라고 평하면서 그러나 어느지역부터 먼저 착공할것인가하는 문제로 정치인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것으로 전망했다.

연장공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는 온타리오도시교통개발공사(UTDC)의 최신식 기술을 동원, 급행통근노선을 신설하게된다.

메트로의 북쪽지역을 통과, 동서로 연결될 이 급행노선은 피커링-스카보로·타운센타-노스욕·시티센타-토론토국제공항-미시사가와·시티·센타-오크빌을 연결하게되며 이노선에는 UTDC가 제작한 차중이 가벼운 고속전동자를 운행한다.

이와 아울러 장기계획으로 현재의 오크빌과 피크링구간의 고·트랜짓 레이크쇼어노선도 UTDC가 제작한 고속전동차가 연행될 새로운 철로를 부설할 계획이다.



◆온다리오 정부는 새로운 장·단기 고·트랜짓 확장및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난꼼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시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Scotia Bank
Toryork Dr.
Finch AVE
Weston Rd.

보광한약방
확장이전개업안내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인 불루아상가(외환은행 불루어지점2층)에 업소를 확장이전 개업하오니,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어느상담이든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10월9일
송계 김남집 배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 봉사.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난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주소 : 627 Bloor st. W. #202 (외환은행 불루어지점 2층)
☎ (B)588-1984 (R)439-6717 송계 김남집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총연합회 운영미비점 노출

회장·이사장 불협화음

(몬트리얼=조미래 부장, 정관섭 지국장)한인총연합회(회장 오기송) 회원들은 3일 상오 임시총회에서 최근 발생한 강신봉 이사회 이사장과 집행부 오회장간의 불협화음을 서로의 커뮤니케이션부족으로 인한 마찰로 결론짓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4월에 정의 정기총회에서 회칙및 정관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가량 열띤 논쟁을 벌인 이날의 회의는 한인총연합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거론했다는 데서 중요했고, 특히 토론토지역대표로 참가한 이대환 한인회부이사장이 「지금까지 토론토한인회가 연합회에 정식으로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이문제는 앞으로 토론토한인회에서 정식결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총연합회와 토론토한인회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던졌다.

이부회장은 이외에도 토론토한인회와 강신봉씨와는 공식관계가 없다고 전제하고 강씨가 지난달 총연합회 회원들에 발송한 문서에서 주장한 "토론토사회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바정부 인사라고 알려진 이상철목사가 초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회원들이…(이번 한인의 날 행사에) 보이콧트작전을 벌리는 마당"이라는 귀절은 강씨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강씨는 불참, 이에 대한 그의 견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의 불씨는 총연합회가 이번 한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한도내에서 각 지역의 참석자 선정에서 일부회원이 탈락되었고 연합회가 원래 2일행사인 심포지엄중 "인종차별과 한국교포"란 제하의 발표자로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이상철목사를 선정했었던데서 발단된다.(연합회측은 후에 이목사 대신 서부지역 부회장 이유식씨를 발표자로 바꾸었고, 한인회장을 지낸 일부 토론토 인사들이 이번 행사에 초대되지 않아 참가 보이콧운동이 한때 거론됐던데서 비롯됐다.

또한 이사장의 이름으로 오기총회장을 비판한 25페이지에 달하는 강씨의 공개서한은 한 개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는 문제점이 있긴 했으나 총연합회의 문제점을 파헤쳐 주고 이를 3일 회의석상에서 공개 거론케해 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대다수 회원들이 말했다.

총연합회의 산파역을 했던 강씨는 이 서한에서 연합회의 필요성, 발족과정과 약사를 약술한후, 오기송회장이 회운영에 있어 1)변칙적이사보선 2)회칙준수불성실 3)회원자격및 회원획간에 있어 독선적인 점을 지적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해명을 요구받은 오기송회장은 "연합회를 연방정부에 법인체로 정식등록(1981.10.28일 완수)시켜 정식승인을 얻기위해서 이사회 조직이 시급했었고 각지 회원들의 동의는 지역상 서면으로 구했으므로 변칙이 아니며 회원및 이사 자격과 선정, 운영상의 독선주장은 "회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참석회원들은 연합회가 한인전체의 권익신장및 옹호에 필요한 단체인 만큼 그 운영상 요구되는 회칙·정관상의 미비점을 차기 총회에서 매듭지을 것과 이의 추진을 위해 현 집행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3일 상오 몬트리얼의 마운트·로열호텔에서 있은 한인총연합회 회의 광경. 3시간 동안의 열띤 논쟁끝에 차기총회에서 회칙을 보완키로 결의, 강신봉이사장이 제기한 문제를 매듭지웠다.

<인터뷰>

재일동포차별 여전 소수민족연구차 토론토에

재일동포의 약90%는 아직도 한국국적을 갖고있다고 전한 도오꾜 한인YMCA 간사 남궁성일(27)씨는 그 이유를 "귀화를 해도 조센징의 이름을 떨칠 수 없다. 일본사회의 차별이란 이미 뿌리깊어 공무원, 대기업등에는 진출할 수 없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일본속에 융화되던지 아니면 네나라로 돌아가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남궁씨는 캐나다동포가 3년의 기간만 되면 시민권을 따는것은 일본과 배경이 다르며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적상실이란 것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일교포2세로 서울대에서 국사학을 전공한 남궁씨는 "일본의 한국사회는 차별속에 자라왔다. 이제는 재일동포 세세대가 자라 70만의 사회로 성장했으나 한국인 권리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의 교포사회는 점점 일본속으로 융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에 한창 화제가 됐던 일본교과서왜곡사건에 대해 언급한 남궁씨는 "일본은 한·일간 고대사를 침지시대부터 연구해왔다. 한국은 국사학과 자체도 생긴지 얼마 안되고 연구가 부족하다. 얼마 안되는 지식가지고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뒤엎는다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남궁씨는 토론토 한인YMCA 김창열총무의 초청으로 지난달 21일 토론토에 도착, 8주간 머물면서 한인 YMCA활동조사및 토론토의 소수민족의 이민역사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남궁성일씨

메트로 범죄 살인·강간 줄고 강도·빈집털이 늘어

금년들어 메트로내에 살인, 강간및 폭행사건은 줄어드는 대신, 기타 성관계위반사범, 노상강도, 사기및 빈집털이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경찰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메트로경찰위원회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9월29일까지 메트로내에 34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건이나 줄어든 숫자이다.

강간의 경우, 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관계위반사범은 1,03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79건이나 늘어났다.

강도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16%나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강도는 지난해의 268건에서 312건으로, 기타강도사건도 1,204건에서 1,40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사기사범의 경우는 지난해의 7,669건에서 금년에는 3%증가한 7,907건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절도는 지난해의 4,774건에서 금년에는 6.3% 하락한 4,475건으로, 200달러이하의 경미한 절도사건은 1.8% 하락한 36,159건으로 집계되었다.

그외에 "공격용 무기"소지로 적발된 건수도 지난해의 2,189건에서 금년에는 9.1% 하락한 1,990건, 형사입건교통사범은 27,367건에서 9.4% 하락한 24,800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메트로내에서 일어난 총 형사입건사범은 지난해의 169,284건에서 금년에는 2.3% 하락, 165,367건으로 집계되었다.

외채 $385억 년말에 줄어들듯

(서울8일=연합)김준성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지난 8월말현재 한국의 대외 부채액은 385억달러이였으며 금년말에 가서는 360억달러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정부는 당초 금년말 외채액이 395억달러로 증가할것으로 전망했으나, 곡물, 원유및 소비품수입이 예상과는 달리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말외채액도 360억달러로 줄어들것이다"고 답변했다.

스코시아건물 87년완공 토론토 2번째, 스카이라인 바꿀듯

토론토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72층 퍼스트·캐네디언·플레이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건물이 오는 87년초 완공될 계획이다.

토론토의 스카이 라인을 바꾸게 될 새 건물은 노바·스코시아 은행건물로 베이, 킹, 아델레이드, 영 블럭에 위치하게 될 스코시아·플라자 중심건물이 될 것으로 높이 838피트에 붉은화강암과 구릿빛 유리로 이 건물의 소유주 캠포회사(Campeau Corp.)는 5억달러를 들여 이건물을 완공, 노바·스코시아은행에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토론토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토론토외환은행본점이 있는 몬트리얼은행건물 퍼스트·캐나디안·플레이스(First Canadian Place)로 72층에 높이는 935피트이다.

3번째로 높은 건물도 역시 은행건물로 캐나디안·임페리얼·뱅크·오브·카므스를 수용하고 있는 카머스·코트(Commerce Court)로 57층에 784피트.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구조물인 CN타우워의 높이는 1,815피트5인치이다.

「캐나다 데이」행사 서울 국제무역박람회서

(서울 5일=연합)「캐나다·데이」기념행사가 4일 국제박람회장에서 많은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서울국제박람회는 지난 9월24일개막, 18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주한캐나다대사관의 L.T.디킨슨 대리대사는 치사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우의와 협력이 전두환대통령의 오타와방문으로 더욱 강화됐다고 전제한후, 원자력, 체신및 천연자원개발등의 분야에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캐나다·데이」기념행사에는 윤자중 무역진흥공사사장, 신병현 무역협회회장, 한·카위원친선연맹 회장인 봉두환위원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끝난뒤 참석자들은 국제박람회장내의 캐나다관에 들려 캐나다 전시상품을 둘러 보았다.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노던·테레콤스(Northern Telecoms), 아덴·마게팅(Arden Marketing)등 3개 캐나다회사가 참가했다.

캐나다의 수입규제로 한국의류 수출업계 긴장

(서울 8일=연합)캐나다정부가 한국, 중공, 홍콩, 대만등 아시아 4개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의 의류수출업계는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총의류수입의 절반가량이 이들 4개국의 제품들이다.

업계소식통이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캐나다정부는 이들 아시아 4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근년에 「심각할 정도로」증가, 불경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캐나다의 국내의류및 섬유제품제조업자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고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쿼터량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캐나다전체의 의류및 섬유류제조업체 고용원의 15%에 해당하는 27,000명이 국내경기하락으로 지난해에 실직되었다.

순복음교회 20일 부흥성회

순복음 나다교회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부흥성회를 갖기로 했다.

초청강사로는 순복음뉴욕교회의 김남수 목사.

교민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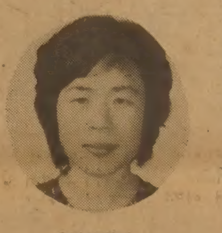
◆설동란·임수철(한밭식품경영)=새로 큰 채소쿨러를 들여와 시설을 완비, 고객에게 더욱 봉사하게 됐다고.

<특별기고>

국경선을 넘는 한국인 ②

김춘희

몇백만원에 여권 산 밀입국자 가난하고 무지한 것이 죄



◆김춘희씨

"Mr. 김! 바른대로 말해주세요. 당신도 나와같은 한핏줄의 동족인데 똑바로 말해주어야 나도 통역을 잘할 수 있지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공연히 이 사람들 신경이나 자극하고 또 허위진술 죄명만 하나 더붙어요. 형사재판(도주혐의), 이민재판(실지는 이민심사 판결이며, 이민법에 저촉되면, 이민재판의 판결을 받는다.), 이 두가지를 거쳐야만 강제출국이든 석방이든 해결을 볼텐데 그런 식으로 횡설수설하면 나도 통역하기가 거북해요.'

말이 밀입국이요 불법체류지 당사자의 심정이야 오죽하나 싶은 측은한 생각에 내 음성도 속으로 기어들 것같다. 죄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불법체류, 도주의 시도등으로 수갑을 차고, 결국은 밀입국자란 엄청난 죄명으로 강제출국의 이민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인 이상 죄인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면 벌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기에 밀입국, 혹은 불법체류의 방조죄(도와준죄)는 더 신중이 다룬다.

백만원에서, 비싸게는 4백만원에 여권을 사들고 미국의 비자를 못받고 캐나다의 T지역으로 온다고 한다. 티지역에서 국경선까지 약 천여달러 또 국경선에 뉴욕까지 얼마, 국경선 알선료를 톡톡히 지불한다고 한다. 알선료를 받고 하는 상습범 알선책들, 더욱 한심한 것은 서울 무슨 시장에서 인부일을 하거나 잡일을 하는 노역자들, 조그만 양복점의 재단사들, 이곳 이민법은 고사하고 국내 여권법도 잘 모르는 이 무식하고 가난한 분들이 혹은 무슨 회사사장이라는 유령회사의 이름을 가진 사기꾼이나 또는 이름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그 거액의 돈을 갖다 바치고 여권을 샀다니…

여기저기서 돈을 꾸어 긁어 모아 산 여권을 갖고 이민간다고 나와서 잘못하여 밀입국자로 체포되어 이민관 앞에서 통곡하고 울어버리는 그들에게 나는 위로의 말조차 할 순 없었다.

이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가난하고 무식한 죄, 그로 인하여 수갑을 찼다면 그들을 사기하여 먹고사는 유식한 사람들은 무슨 죄명을 붙여 죄인이라 할까?

통역관은 감정이 흔들린다. 또한 직무이탈이다.

"여보 이민관, 저 사람들의 죄값은 당신들이 치르세요. 저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죄하기 전에 캐나다의 이민국을 단죄해야겠어요. 왜냐구요? (계 속)

원자력문제 강연 한맘노년회 모임

토론토의 한맘노인회(회장 김성군)는 10일(일) 하오3시 대건회관(439 Dundas St. E.)에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주제는 「원자력 발전과 안전」으로 강사는 김종상씨(공학박사, 온타리오 하이드로근무)이다. 김박사는 서울 문리대 출신, 토론토대학 유학,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었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6,000쌍 합동 결혼식 문선명통일교 주선

(서울7일=연합)세계각국 인총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합동결혼식이 다음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의 통일교주 문선명목사 부부는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83개국에서 모여든 12,000명의 합동결혼식을 주선, 주례를 볼 예정이다.

통일교측의 7일 발표에 의하면 총 6,000쌍중 3,800쌍은 일본, 1,200쌍은 한국, 600쌍은 유럽, 150쌍은 미국, 100쌍은 중남미의 신랑·신부들이다.

신랑신부가 교환할 금반지의 총무게가 60Kg이나 되며 가격으로 7억원(약1백만달러)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통일교는 지난 7월1일에도 뉴욕의 메디슨·스크웨어·가든에서 54개국 2,100쌍의 합동결혼식을 올렸으며 1975년에도 서울에서 1,800쌍의 합동결혼식을 가졌었다.

<독자의 광장>

유태인의 과잉보복

박찬도(사업경영)

인간은, 인간에게 이기, 반이기작용이 엇갈려 온다는 당연하고 단순한 사리를 이해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나 상당한 반이기 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때 사소한 반이기작용에 대하여 이를 감수하는 책임을 무시했다. 팔레스타인을 과히 응징하려는 대공세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민간인까지 대량 학살하게 되었다.

이는 과욕적 행위이다. 이는 보복적 악순환을 낳고,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또한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자초하는 처사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악의 평가기준을 가름 못하는 「마음의 병」에서 생긴 것이라고 본다. 즉「과욕마음」인 것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참변을 동정한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게 학살당한 것을 똑같이 팔레스타인난민에게 행함과 이같은 되풀이를 않도록 큰 사랑과 관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는 것이 개인과 국가와 세계를 위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도리일 것이다.

이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크게 교훈이 되는 사리로 본다. 원수를 사랑으로 돌리는 것(사랑하며 비판 응징하는 것)이 개인과 나라와 인류에게 도움되는 사리이다.

《식품 제조업체 탄생》

ONTARIAN FERMENTATION (온타리안발효공업) CO.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온타리안 발효공업에서 최신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식품 전문가에 의한 한국종합식품및 일부 일본식품을 비롯 하여 다수 서양식품 생산을 앞두고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더욱 성원해 주시옵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최재경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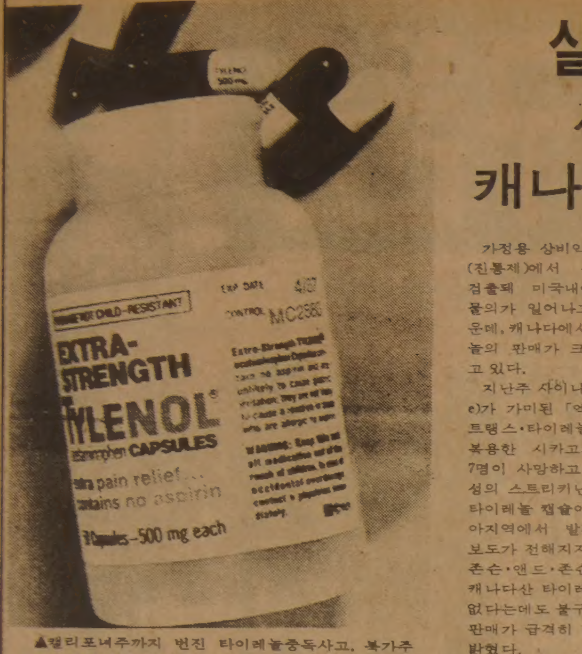
품 목: 21종류
※새로 각종 Soup을 개발했읍니다.
콩나물(순자연성장에 의한 것임 화학약품이 전혀 포함 안돼있음)
두부(일체 간수가 없는 두부 및 간수가 있는 두부) 2종류
흰떡
한국, 일본 장류
국수류 일체(독특한 구수한 맛을 자랑)
냉면, 진짜 육수
짜장국수, 짜장 Soup
가마보꾸
만두종류
생선 쏘세지
식물성 단백질 쏘세지
우동, 우동 Soup
픽클류 등등.

온타리안 발효공업회사 대표 최 재 경

살인 진통제 타이레놀

시카고 복용자 7명 사망

캐나다에서도 판매 저하



▲캘리포니아주까지 번진 타이레놀중독사고. 북가주 오로빌지역에서 발견된 타이레놀캡슐에서는 쥐약의 한종류인 스트리키니싱분이 포함된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용 상비약 타이레놀(진통제)에서 살인독물이 검출돼 미국내에서 크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타이레놀의 판매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사이나하드(cyanide)가 가미된 「엑스트라·스트랭스·타이레놀」(캡슐)을 복용한 시카고지역 주민 7명이 사망하고 뒤이어 독성의 스트리키닌이 함유된 타이레놀 캡슐이 캘리포니아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제조자인 존슨·앤드·존슨회사측은 캐나다산 타이레놀은 해가 없다는데도 불구, 타이레놀 판매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영·스트릿과 킹·스트릿의 샤퍼스·드럭·마트(Shoppers Drug Mart)의 약사인 에리옷·모스씨는 「과거 같으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타이레놀캡슐 24상자를 판매했는데 독물첨가 보도가 전해진 후에는 한개도 팔지 못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제조회사인 존슨·앤드·존슨회사는 6일 캐나다약사들에게 타이레놀캡슐제품을 선반에서 수거한후 당분간은 조제구역안에서만 판매하도록 권고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1년전부터 이미 모든 타이레놀이 조제실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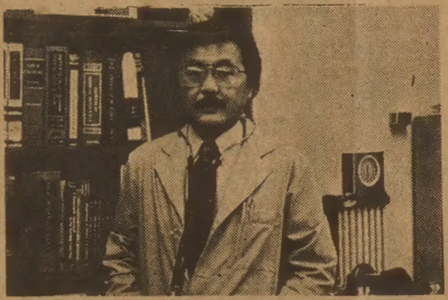
이 약품은 염증을 앓고있는 환자에게는 부적합하며 과용하게 되면 간에 손상이 온다는 의학보고가 있었으며 온타리오약학대학은 지난6월 이 약품을 진열대에 놓아두지 말고, 조제실에서만 취급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에서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제품은 엑스트라·스트랭스·타이레놀(함량 500미리)캡슐로 50정씩 병에든 것으로 Lot No. Mc2880(쿡·카운티의 경우), 1910MD(듀페이지·카운티의 경우) 두종류가 있다.

제조회사는 문제의 타이레놀캡슐을 시카고지역에서 회수중이며 미국연방식품의약청(FDA)은 전국적으로 이 캡슐의 회수령을 내렸다. 타이레놀중 캡슐이 아닌 정제(태블로이드)는 청산가리함유 위험이 없다.

청산가리(사이나이드)는 해로운 동물을 살상하는데 사용되는 독약으로 극소량을 복용해도 치명적이다. 복용시 첫 증상으로는 구토, 현기증, 두통이 수분후에 발생한다. 청산가리중독은 혈액순환, 호흡차단으로 불과 수분~15분정도에서 생명을 뺏으므로 구급시 호흡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살인 타이레놀" 판명한 주역은 한국계의사



▲다년간의 의료행위 경험으로 타이레놀 중독사고가 청산가리에 의한 것임을 확신, 재빨리 중독원인을 규명케한 교포의사 토마스·김씨.

(시카고지사)7명의 생명을 빼앗고 전 미국을 긴장시킨 타이레놀중독사고의 원인을 타이레놀에 들은 청산가리라고 판정한 사람은 한국계 의사 토마스·김씨(38)였다.

시카고 서북교회 알링턴하잇츠에 있는 노스웨스트 컴뮤니티병원의 중환자유닛에 근무하는 김씨는 사건의 시작과 경과 그리고 원인규명까지의 긴장된 70시간을 다음과 같이 되돌아봤다.

29일 낮12시30분께 첫 희생자인 애담·재너스(27·우체부·알링턴하잇츠거주)가 응급실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병원측이 사고원인을 규명할 사이도 없이 하오3시30분께 절명했다.

곧 쿡카운티검시관에 보고하고 하오5시30분께 퇴근하려는데 사망한 애담의 동생 스탠리(25)와 스탠리의 부인 테레사(19)가 구급차에 실려왔다. 스탠리도 이날 하오8시15분께 숨졌다.

병원서 3블럭 거리에 사는 한 가정에서 한꺼번에 3명이 같은 중독증세를 나타낸 원인을 규명키 위해 경찰과 소방대의무반에 연락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이날 낮 애담을 병원까지 동행한 스탠리와 테레사가 귀가후 두통으로 애담이 먹었던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어 엘크글로브빌리지에서 12세의 한 소녀가 급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타이레놀이 사망원인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같은 급작사는 청산가리같은 맹독성 독주물을 마셨을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졌다. 사고가 난 두집에서 타이레놀을 수거하고 사망자의 혈액을 채취, 하오8시30분께 스코키의 바이오텍스 실험실로 보내고 상항과 콜로라도에 있는 독물센터에 문의했으나 신통한 대답을 못받았다.

30일 새벽2시께 바이오텍스로부터 사망자의 혈액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즉각 쿡카운티검시관실로 연락, 수거한 타이레놀의 분석을 요구, 이날 상오 9시30분께 청산가리가 사망원인임이 판명되고 시카고전역은 공포의 도시로 변했다.

김씨는 『그동안 의료행위의 경험을 통해 사망원인이 청산가리라고 직감해 빨리 원인을 규명한 것에 직업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사법당국의 빠른 조치로 더 큰 희생자가 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昏의 사나이 <84>

얼굴없는 死者 ⑧

屍體상자를 운반한 청년도 나타나…

金聖鍾 작

다음날, 그러니까 12월21일 또하나의 정보가 들어왔다. 정보원의도움으로 형사 두 명이 청년 한명을 찾아내어 센터로 직접 데리고 왔다.

수사요원들이 빙 둘러싸자 청년은 겁에 질려 두리번 거렸다.

『직업은?』

『용달차를 운전하고 있읍니다.』

『지난12월4일 라면박스 다섯개를 서울역 수하물계로 실어다 주었나?』

『예, 그렀습니다.』

『어디서?』

『강남에서 실어다 주었읍니다.』

『그 장소를 기억하겠나?』

『네, 기억할 수 있읍니다. 장부에다 항상 적어놓으니까요.』

청년은 용달회사에 소속 되어있기 때문에 짐을 실어다줄 때마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및 요금을 그때마다 장부에 기입해 두어야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정확했다.

『짐을 부탁한 사람은?』

『중년신사였읍니다.』

『용모를 말해주겠나?』

12월4일 오후 2시경 한 중년신사가 라면박스 다섯개를 길가에 쌓아놓고 서있었다. 조금 큰 키에 베이지색 바바리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코트는 꾸적 꾸적해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멋진 분위기를 이루어주고 있었다. 용달차운전사는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웠다. 신사는 차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멍하니 서있기만했다. 운전사는 박스를 가리키면서 싣고 갈거냐고 물었다. 그제서야 신사는 미소를지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른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에 핏발이 선것이 몹시 피로한 모습이었지만 말씨나 태도가 매우 정중했다. 운전사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인상에 남았다. 매우 선량하게 생긴신사였다. 선량한 인상이라는 것-그가 기억하고있는 것은 그것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관찰력의한계였다. 인상을 말하는데있어서 사람들은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그가본 것은 그것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생겼더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고만다. 단지 눈이 크더라, 입이 크더라, 코가 크더라 정도가 고작이다. 운전사가 본것도 그 이상을 넘지 못했다.

朴 男 그림

『서울역에 싣고 갈거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함께 타고 갔나?』

『아닙니다. 그 사람은 타지 않았읍니다.』

『타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수사관들은 의혹에찬 눈으로 그를 쏘아 보았다. 운전사는 당황해서 말했다.

『그게 이렇게 됐읍니다. 그 사람이 돈 3만원을 주면서 수고스럽지만 서울역에 가서 자기대신 짐을 좀 부쳐달라고 했읍니다. 주소는 박스에다 다 적어놓았으니까 그대로 부치면 된다는 거였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몹시 급한 일이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였읍니다. 간곡히 부탁한데다 돈을 적지않게 주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없다싶어 승낙했읍니다. 어떻게 나를 믿고 짐을 맡기느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용달차 옆구리를 가리켰읍니다. 거기에는 용달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읍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이리 전화하면 될거 아니냐고 하기에 나도 웃었읍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묻기에 저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리고 짐을 실으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읍니다. 박스는 모두 다섯개였는데 그중 하나는 좀 크고 무거웠읍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무겁지 않았읍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별 헌

PAPER-SERVICE-REPAIR
⊙품목 : ●각종 전자캐쉬레지스터 (파나소닉, TEC, SHARP, NCR등등)
●저울 ●복사기

세일기간
10월12일 ~10월23일
<2 주간>

교민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세일기간을 설정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계를 다시 구입코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세일기간을 설정하고 여러분께 봉사코자 합니다.

사무실이나 어떤 가게든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품목에 특별할인해 드릴 것이오니, 일단 값을 비교해 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수 일 올림

※모든 기계에 대해 책임판매로 100% 보증.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이슬링톤)

☎(B 252-7377 (R 762-4536

한국일보

"「和合의 政治」구현을"

국회본회의 政治·외교·安保 對政府질문·답변

地方자치制 一括실시 金총리

"憲政심의機構 설치하라" 질문

"民族主義는 不可缺한것" 답변

국회는 6일하오 金相浹총리등 관계각료들을 출석시킨가운데 本會議를속개, 정치외교안보문제에대한 對정부질문을벌였다. 이날 질문에나선 許景九(民韓) 金琪洙의원(국민) 등 야당의원들은 각종 改革立法의 개정등 정치제도와 운영의개선을 촉구했고 與黨의 河舜鳳의원은 외교현안문제에관해 물었다. 金相浹총리는 답변에서 地方自治制문제에 대해『모든 지방자치단체의財政자립도가 골고루 어느선에올라섰을때 단계적이 아닌 一括실시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문제와 관련,『헌법에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전반적인 지방재정자립도는 60%미만으로서 만일 단계적 실시를 할경우 지방적인 劣等의식이나 優越의식이 나올수있다』면서 단계적으로는 실시하지 않을것을 시사했다.

金총리는 이어 워커駐韓美대사의 최근 한국민족주의발언에 언급,『대학교수출신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대로 밝힌것으로 생각하며 그의 말이 美국무성의 양해를 얻었거나 美국무성이 시켜서 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소수의미국인이 한국의 민족주의가 과격화 경향을 띠는데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제,『그러나 우리로서는 민족의 정체와 민족의자존을 지켜야하며 우리의민족통일의 바탕과 민족화합을 위해서도 민족주의는 필요한것이며 존중받아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金총리는 이어 정치被규제자解禁문제에 대해『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고도의 정치적결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6월16일 청와대회담때 대통령자신이 적절한시기에 단계적으로 해금을 고려할터이니 일임시켜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解禁되기위한 제반여건이 하루빨리 성숙되기를 바라는한편 많은 분들이 이규제에서 풀려나기를 희망하며 미력이나마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金총리는 또 韓日經協문제에 언급,『교과서 왜곡문제가 완전 타결되지 않고서는 經協이 진전되지 않을것으로 보며 經協문제가 교과서왜곡 시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교과서 문제에 대한 타결이 없는한 경제협력은 진전이 없을것이며 왜곡부분을 시정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확고한 태도』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언론기본법의 폐지 주장에 대해『지금껏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온것이 없으니 만큼 당장 改廢의 필요성에 생각이 미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을 포함한 改革立法의 개정문제에대해『이들 법안은 상당히 오랫동안 신중히 검토해서 제정한 것이고 선거법도 아직시간이 있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볼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나선 許景九의원(民韓)은 정부의 개혁정치를 비판하면서 온건한 정책과 국민화합을 강조한뒤『정부는 차제에 일대和合的 정치적 蕩平策을 펴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정치활동피규제자의 解禁과 維新殘滓의 청산을 촉구하고『정부는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민주화계획을 실천하기위해 차제에 各級선거법등 일련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법안등의 개정을위해 憲政改革을위한 정부와국회합동의「憲政改革審議기구」를 세울것』과 언론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金琪洙의원(국민)은『改革立法을 지나치게 聖域化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추궁하면서 정치활동피규제자의 解禁과 언론기본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또 南北韓의 軍備縮소를 제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농민 負債상환을위한 획기적 조치▲교과서문제등 對日관계▲國軍 現代化계획의 추진 狀況등에 관해 질문했다.

河舜鳳의원(民正)은 최근 워커 駐韓 美大使의 對韓민족주의 발언에대한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냐고 묻고 레이건 대통령의 訪韓 가능성을 타진했다. 河의원은 최근의 北傀—中共지도자의 왕래와 北傀—蘇聯, 美·中共관계의 진전에 대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궁하고 앞으로 통일외교와 통일정책의 전개방향을 물었다.

그는▲對日經協의 진전도▲팔레스타인문제등 對中東정책▲88올림픽을 위한 對공산권및 비동맹외교▲아세안·아프리카의 頂上외교후속 조치▲공산권 교포방문 실현방안등에 관해 물었다.

◇金相浹 국무총리가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뒤는 丁來赫 국회의장.

"한국型 驅逐艦 생산중"

答辯 "南北對話 실현措置 강구중"

"농어촌後繼者 兵役특혜 확대곤란"

尹誠敏국방장관은 6일『현재 M16소총과 野砲 각종 탄약류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警備艦 한국型 驅逐艦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히고『經장갑차도 생산단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試製品이 나올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尹장관은 이날하오 국회본회의에서 방위산업에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농어촌後繼者육성을위한 兵役特惠의확대는 국민兵役의무의 형평에어긋나고 특히 징집자원減少가 우려되어 현단계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孫在植통일원장관은 답변에서『정부는 남북대화실현을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하고『현재 통일헌법의 골격에대해 진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내외에 밝힐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孫장관은 이어 中共—北傀관계에대해『단기적으로 中共—北傀관계는 정치·경제·군사등 한정된분야에서 밀착된것으로 보이나 中共이 4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北傀에대해 남북간의 균형을 깨뜨릴 결정적 지원은 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加 議員친선協會長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6일상오 청와대에서 캐나다·한국의원친선협회장인 로버트·카맨·코우츠下院의원일행 9명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한국과 캐나다양국은 평범한 友邦이아니라 血盟의 사이』라고 말하고『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의 友誼는 더욱 심화발전돼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3士大會 선수단도

全斗煥대통령은 6일하오 3軍사관학교체육대회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 2백55명을 청와대로초치, 다과를 베풀고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앞으로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는 생도들이 갈고닦은 실력과 체력및 평소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하되 규칙과 질서의식을 철저히 준수, 화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자리에는 金潤鎬합참의장 黃永時육군 李銀秀해군 金相台공군참모총장 尹誠敏국방장관 崔東植육군 金大植해군 白樂野공군사관학교장이 배석했다.

社會漫評

겨우 이걸갖고도 쩔쩔매고 있으니…

본격 景氣회복 어려워

生產性본부조사 겨울둔화 3월께나 풀릴듯

앞으로 당분간 본격적인 景氣回復은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가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향후6개월(82년4·4분기~83년1·4분기)경기전망에 의하면 82년중반기부터 침체에서 벗어나 미미한 회복세를보이던 국내경기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다소 둔화되었다가 내년3월께가서야 다시 미미한 회복세를보일것으로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경우 6·28조치에도 불구하고 큰 호전을 가져오지 못한채 10월까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것이나 11월이후엔 다소 후퇴하고 내년3월에 가서야 회복세를 되찾게되며 광업은 4·4분기중 석탄광업이 성수기를 맞아 일시(10~11월)적으로 호전됐다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후퇴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은 해외건설수주의 감소와 함께 주택수요자금융지원확대, 취득세 등록세등 세금인하, 그리고 6·28조치및 7·3조치에따라 유휴시금과 은행예금의 일부가 부동산거래에 유입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미미한 회복세에 그칠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통업은 실질임금의 증가, 구매력의 다소간 회복, 연말연시의 계절적 요인으로 9월의 미미한 회복수준이 3월까지 견지될것으로보인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메아리

116

범죄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3. 화재신고는 119. 이 세가지 신고 전화번호는 애들도 노래처럼 외운다. 전화번호가 아리송할 때 114를 돌릴 줄도 안다.

그러나 이들 말고도 손쉽게 이용할만한 번호가 더 있음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예컨대 118.

그 쓰임은 이렇다. 전화를 쓰려는데, 잘 걸리지를 않는다. 상대방 전화나, 내 전화가 고장 아닌가 싶어진다.

이럴 때 118을 돌리고, 발신음을확인한뒤 내 전화번호를 돌린다. 그런다음 수화기를 놓으면, 벨이 울린다. 그 소리가 내 전화에는 고장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118은 전화번호부 「특수전화번호안내」에도 나와 있지 않다. 아마 회선이 적거나, 전화수리공의 업무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118이 있을줄이나 알아 두고, 정작의 고장 신고는 110, 또는 국번+1166을 쓰는 것이 옳겠다.

局番없는 1백번대의 전화는 이 것말고 몇이 더 있다. 전보를 접수하는 115, 국제전화를 접수하는 117, 102와, 시외통화를 접수하는 지역별번호들. 더하여 116의 時報전화가 있다. 이 번호는 진작 실험용으로 개통이 됐고, 전화번호부에도 올라 있었으나, 정식개통은 지난 3일이다.

이렇게 보면, 쓰기 편한 1백번대의 번호는 모두 신고용 또는 업무용이고, 영업용—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안내전화는 116이 처음이다. 우리 전화사업이 업무에는 열심이면서, 장사 할줄을 모르는 한 단면이다. 그래서 전화가입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못하고, 전화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없다.

116 時報전화는 매 10초마다 정확한 시각을 알려준다. 10초마다 달라지는 時報의 여자 목소리는 컴퓨터로 「合成」한 것이다. 그냥 녹음 테이프를 들려 주던 여태까지의 안내전화와는 다르다. 좀 서툴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말하는 컴퓨터」로구나 생각하면, 약간은 신기하다.

전기통신공사의 말을 들으면, 116에 걸리는 전화는 하루 7만통 꼴이다. 度數料 20원씩을 쳐서 하루 1백40만원, 한달이면 4천5백만원은 좋이 된다. 표준연구소의 時報, 「말하는 컴퓨터」의 개발은 연구소 자체예산으로 했다니까, 전기통신공사의 부담은 4천만원 남짓한 회선시설분이다. 그러니 時報전화는 한달이면 시설비가 빠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장사가 어디 또 있으랴. 전기통신공사는 장사가 돼서 좋고, 이용자는 편해서 좋다. 또 그것이 이용자의 時間感覺, 時間生活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전화는 이용하기에 달렸다. 반드시 데이터通信, 팩시밀등 무슨 희한한 장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삿속으로 생각해도, 거창한 투자보다는 아이디어와 서비스 정신을 앞세워야한다.

전화보급률 세계제1을 자랑하는 스위스는 이 면에서도 모범이다. 스위스는 각종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1백번대 번호를 27종이나 배정하고 있다. 날씨와 눈사태, 도로사정, 외환시세, 증권시세, 운동경기 스코어,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최신뉴스등 무엇이든 지정번호에서 흘러나온다. 이용자는 141을 돌려 택시를 부르며, 143을 돌려 인생상담을 한다. 심지어 전화를 갖고있지않은 친지와도 연락이된다. 11을돌리면, 주소를 보아 가장 가까운집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 모두 요금을 받는 전화니까, 장사도된다.

이가운데 대부분은 우리도 아쉬운 것들이다. 지금 국번까지 7차례 다이얼을 돌려야 하는 날씨예보전화는 당장 3단위번호를 배정할 수도 있다. 物價安定이 아쉬운 판이니, 物價情報를 알리는 전화도 있음직하다. 이용자의 편의, 公社의 영업, 정부시책의 방향에서, 연구해볼 일이다.

전화보급을 늘리는 계획뿐아니라, 그 전화의 이용방안에도 머리를 짜야한다. 그래야 電話社會가 앞당겨진다. 그것이 전화사업등위한 획기적투자의 계기가된다. 그래야 모처럼 전화사업을 公社化한 뜻이 산다.

金昌悅 <編輯委員>

記者의 눈

거리먼 各黨의 政治觀

정기국회가 열릴때 마다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있는 것은 의원들의 對정부질문과 함께 각政黨의 대표연설이라고 할수 있다.

5일의 각政黨대표연설을 귀담아 들으면서 느낀것은 제5공화국정부가 민주주의의 土着化를 國政지표의 하나로 내세운지 벌써 2년여가 되고있지만 아직도 與野가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는 視角에는 현격한 격차가있다는 점이다.

집권당인 民正黨이 새로운 政治人像의 확립과 對話정치풍토의 쇄신을 계속 주장한 반면 野黨인 民韓黨과 국민당은 오늘의 정치현실을 「정치不在」로 규정지으면서 「정치의 회복」과「권력의 도덕성」등을 주장했다.

오늘의 政黨들이 政策政黨化하고있는 만큼 政策에 대한 黨間의 차이라든가인식의 차이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시대, 그나라의 생존規範이라고 할수있는 정치현실을 보는 與野의 視角에 이처럼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을 볼때, 언제까지나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번 政黨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또한가지 사실은 政黨나름의 고유특성이어야 할 집권정당의「책임意志」나 野黨의「비판機能」이 조금은 여리고 빈약했다는 점이다. 특히 民韓黨의 경우 대표연설의상당부분을「정치回復」에 할애함만큼 역점을 두면서도 정치회복의 우선 사항이될 주요문제들을 뒷전으로 돌린것은 석연찮은대목이다. 국내정치에는 그토록 완곡하면서도 對日외교에서「國交단절 不辭」의 적극론도 어설픈감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제2야당인 국민당의 경우도 제1야당이 줄곧 주창해온 청와대 회담의 후속조치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정치발전을 위한「特委구성」을 제안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집권 民正黨은「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는「이렇게 할수밖에 없다」든가「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당초 正政法의 예고편에서 빗나가는 깜이다.

그러나 民正黨이 비록 先決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종체로 擧論키 어려운 정치解禁문제와 地自制실시문제에 언급한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어느정도 前向的인 자세를 보인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표연설에서 느낀것은 與野가 보는 정치현실에 대한 見解의 폭이 하루빨리 좁혀질때, 이른바 민주주의의 土着化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與野가 다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李成俊기자】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地平線

파란 가을 하늘아래 大型국제세미나붐이한창이다. 韓國統一問題國際學術會議가, 平和統一정책자문회의 事務處주최로, 현대사회와 대학발전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서울대개교36주년기념행사로, 제5차세계언론인회의가『사회적 제문제와 언론의 책임』을 주제로 각각 열린것이다.▼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회의등으로 불리는 학술적모임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내린지는 벌써 20년이 넘는다. 국제세미나가 풍성하게 열려 선진외국학계와 수평관계를 이룩하면서 교류폭을 넓히는것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수준, 학문수준이 높아진것을 말한다. 세미나를 올바르게 개최하기란 대학을 하나 참설하는것 만큼이나 어렵다는 말까지 있다. 세미나의 주제가 대학의 설립목적과 같은것이라면 프로그램은 교과과정과 같고 발표및 토론자는 교수진과 비유되기때문이다.▼세미나의 라틴어원뜻은「종자를 심어 작물을 이식하기위한 계획」이고 예전에신학교를 가리키도록했다. 요즘은 전문적인 학문상의문제점에서 시작해서 정치·사회의 당면과제까지 포함시킨것이 세미나다. 여러사람이참가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민주주의적 학문연구방법이라고 할수있다. 대화의 공통된 광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있는것이다. 또 동양인의 직관적, 상하적 사고방식에서 서양인의 분석적, 실증적 수평적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공헌을한것이 세미나인지 모른다.▼이번의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민족 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 했다. 하와이대의 마이클·하스박사는 교류의 回路를 효율적으로 한것을, 메릴랜드대의 오한·연박사는 새 통일의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예일대의 웨스티·멘드교수는 북한당국이 反蘇외교노선을 택하면 繼小島의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생긴다고 주목끄는 발언을했다. 서울대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터론토대 제임즈·M·햄총장이 교양교육과 전문분야연구의 상호보완을 역설했고 동경대 하야시·겐따로 전총장은 엘리트의 창조적연구와 대중교육사이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대학교육과 연구기관의 분리를 주장했다.▼수많은 外國碩學이외에 국제언론인 회의에는 싱글러브장군, 구엔·카오·키전월남수상이 참석해 눈길을 모으기도했다. 모두 대형국제회의이니 만큼 성과도 크겠지만 세미나가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말고 학술발전과 당면과제연구의 새로운 바탕으로 활용돼야 그 의의는 더커진다. 세미나가 성행하는 가을철에 푸짐한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처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춘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 승 석
(R) (416)633 7892 (David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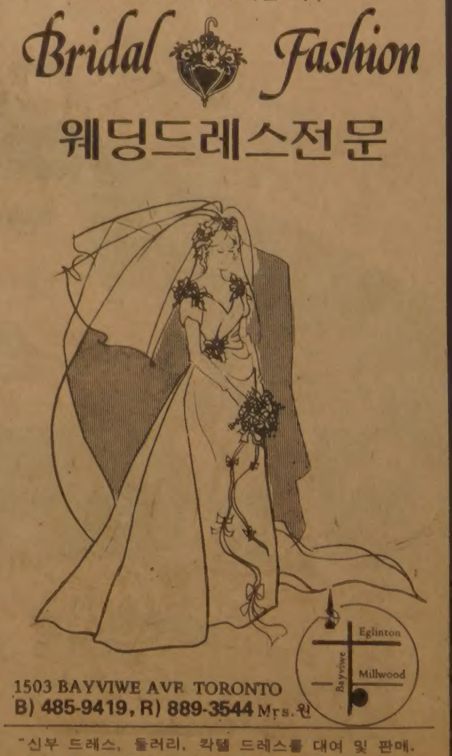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세계에서 제일많이 팔리는 밥솥입니다.
—언제나 가격이 경쟁적입니다.
—보온을 하기 위한 단추가 두개씩 있읍니다.
—두개의 회로가 연결돼 열효율이 더욱높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 백합같이 우아한 미!
Bridal Fashion
웨딩드레스전문



1503 BAYVIWE AVE TORONTO
B) 485-9419, R) 889-3544 Mrs.원

"신부 드레스, 들러리, 칵텔 드레스를 대여 및 판매. 각종 꽃 어렌지, 청첩장을 모두 구비하고 있읍니다."

蘇·베트남 中共에 「善隣」촉구

크렘린서 브레즈네프-친 會談

東南亞에 「平和地域」설치

問題해결위해 國際회의도 강조

【모스크바AP UPI=聯合】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과 베트남국가평의회의장 트루옹·친은 5일 크렘린에서 회담을 갖고 중공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중공간의 관계증진이 3국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브레즈네프서기장은 이날 친의장을위해 베푼 크렘린만찬석상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소3국간의 선린관계유지를 촉구하면서▲동남아에「평화지역」을 설치하고▲이지역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모색할 국제회의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브레즈네프서기장과 친의장이 회담을 갖고 소련및 베트남의 對중공관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련과 베트남이 각기의 對중공관계를 정상화하는것이 3국모두의 이익은 물론 전세계평화의 증진에 부합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브레즈네프서기장은 만찬연설을 통해 친의장과의 회담에서 토의된 주요의제중의 하나는 베트남및 소련의 對중공관계에 관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潛艦 수색作戰 스웨덴해군은 5일아침 스톡홀름남부 무스코 해군기지 인근해역에 갇혀있는 정체불명의 잠수함을 찾기위해 헬리콥터를 동원, 색출작업을 벌이고있다. 【스톡홀름 6日UPI電送=聯合】

볼리비아軍政 종식 새大統領 수아소氏

【라파스AP 聯合=聯合】볼리비아의회는 5일 좌익人民民主同盟 (UDP)의 망명지도자인 에르난·실레스·수아소박사(69)를 임기4년의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軍政 2년여만에 이나라에 民政을 복귀시켰다.

군사정부는 이 나라를 마비시켰던 총파업이 발생한후 지난주 공식발표를 통해 軍은「국민화합유지를 위해」오는10일을 기해 권력을 민선대통령에게 이양한후 정치에서 손을 뗄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波 自由勞組지도자 프라시뉴크 被逮

【바르샤바UPI·AP=聯合】폴란드보안군은 지하자유노조 4人지도부의 일원인 블라디스와프·프라시뉴크(28)를 南部 실레지아의 브로츠와프에서 체포했다고 폴란드TV放送이 5일 보도했다.

자유노조가 작년12월의 계엄령선포로 활동을 정지당하기전 브로츠와프의 자유노조지도자로 활약한 프라시뉴크는 지난4월 그다니스크 자유노조지도자였던 보그단·리스 자유노조 바르샤바지부장이었던 즈비그네프·부야크, 크라쿠프자유노조지도자였던 블라디스와프·하르데크등과 지하자유노조의 「임시전국조정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스웨덴領海에 蘇潛艦

海路봉쇄위해 爆雷13개 投下

【스톡홀름UPI聯合=聯合】스웨덴해군은 스톡홀름 남부 무스코 해군기지에 침투한 괴잠수함을 소련잠수함으로 보고있으며 해군의 경비망에 갇힌 이 잠수함을 부상시키기위해 5일 13개의 폭뢰를 투하했다.

베르틸·라게르발 스웨덴해군대변인은 이 잠수함이 공해에서 16km나 스웨덴 영해로 들어온 호르스프야르덴만안에 갇혀있어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2개의 좁은 해로를 통과해야 하나 해군이 이를 봉쇄하고있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스웨덴국사령부의 얀·아케·베르그중령은 스웨덴영해와 인접한 발트해에는 소련과폴란드및 서독잠수함이 항행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독방위성은 스웨덴영해에는 자국잠수함이 1척도 없다고 공식통보해왔다면서 그동안의 치밀한 색출작전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내지않은 잠수함의 선종으로보아 소련잠수함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아프간叛軍 蘇軍 6명處刑

【뉴델리UPI聯合=聯合】아프가니스탄 회교반군은 최근 소련軍과 아프간정부군 30명을 사로잡아 그중 소련군6명을 죽이고 다른 4명을 끌고갔다고 뉴델리의 서방외교관들이 5일 전했다.

외교관들은 회교반군게릴라들이 지난달 25일 카불서북쪽 약20km지점의 파그만읍에서 소련군10명과 아프간정부군 20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외교관들은 이어 소련군6명은 처형됐으며 다른4명은 아프간·파키스탄국경을 향해 東쪽으로 끌려갔다면서 그들은 아마도 심야지방의 한외딴곳에 억류됐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로미코 蘇외상 訪日초청거절

【東京AP=聯合】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는 5일 日蘇평화조약회담을 갖기위해 일본을 방문해달라는 사쿠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일본외상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대대적인 搜索작전

레바논軍 西베이루트서 PLO등 체포

【베이루트AP=聯合】레바논정부군은 5일 서베이루트의 중심에 있는 함라지구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전개, 다수의 팔레스타인과 외국인을 체포하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대원들과 레바논 좌익민병대원들이 감춰둔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압수했다.

보안소식통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수가 약 4백5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5~76년의 레바논내전으로 와해된후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재건되고있는 약 2만8천명의 레바논정부군은 이번 작전에 내전이후 최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했다.

레바논정부군은 이날 상가밀집지역인 함라지구를 완전봉쇄하고 병력수송장갑차(APC)와 戰車型차량을 요소에 배치, 통행인들과 승용차탑승자들의 증명서를 조사했는데 다국적평화유지군의 프랑스공정대원들은 각초소에서 레바논軍의 검문검색을 도왔으나 팔레스타인人및 외국인 체포에는 관여하지않았다.

美軍 베이루트空港 점거

다국적 국제평화유지군 (병력3천) 의 일원으로 베이루트에 파견된 1천2백명의 미해병대병사들은 5일 베이루트국제공항주변에 철조망을 가설했다.

미해병대는 또 이스라엘군진지들로부터 불과 2백50m거리의 공항남쪽지역에서 진지구축작업을 벌임으로써 작전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미해병대의 철조망 가설작업에는 이탈리아군도 합세했다. 【베이루트=UPI AP】

非同盟정상會談 3월에

나라시마·라오 인도외상은 5일 제7차 비동맹정상회담이 내년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뉴델리에서 열릴것이라고 밝혔다.

라오 외상은 이날 비同盟회의 예비외상회담을 주재한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정상회담이 내년3월 3·4일 양일간 열릴 비동맹외상회담에 이어 개최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본부=PTI】

外信안테나

美, 이軍 레바논侵攻 묵인

레이건 행정부내 某고위인사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침공을 묵인하는 청신호를 이스라엘에 보냈었다고 카터前대통령이 4일 주장했다.

카터 前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州출신 마틴·루소원의원의 선거자금마련을 위한 만찬회에 참석하기 앞서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확인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 그와같이 주장하면서 『청신호를 보낸 인물은 알렉산더·헤이그 前국무장관인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업시프(美일리노이州)=AP】

콜 西獨새수상 早期訪美

헬무트·콜 신임서독수상이 레이건 미대통령과 회담하기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무성이 5일 밝혔다.

존·휴즈 국무성대변인은 조지·슐츠 국무장관과 한스·디트리히·겐셔 서독외상이 이날 75분동안의 오찬회담을 갖고 콜 수상의 방미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엔본부=AP】

蘇는 이념보다 實利추구

톨스토이後孫 니콜라이·톨스토이 卿

브 이후에 實權은 젊은층이 잡을듯

對外 무력행사엔 國內가 너무 복잡

「브레즈네프 이후에 등장할 소련지도층은 소련의 국가이익을 위해 이데올로기에 선행하는 실리주의路線을 택할 겁니다. 무력을 앞세워 무리한 對外膨창을 꾀한다거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강경노선을 취하기에는 우선 해결해야할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기때문이죠. 특히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난은 새지도층의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겁니다」

영국의 소련문제 전문가인 니콜라이·톨스토이卿(47)은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련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톨스토이卿은 러시아이민출신. 러시아의 大文豪 레오·톨스토이(1828~1910)와 한가문이다.

그의 증조부가 톨스토이와는 4촌형제간이었다.

『누가 브레즈네프 후계자가 될지는 정말 알수없읍니다。확실한것은 브레즈네프이후에 5~10년간의 과도기가 따를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기간은 소련의 실대권력자가 죽었을때 흔히 그러했듯이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수도있겠죠。이 과도기가 지나면 보다젊은 세대가 실권을 잡을전망이 큽니다。이젊은 세대들은 러시아대혁명을 겪지않은 세대입니다」그는 크렘린의 권력투쟁은 문자그대로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맞수가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화제를 톨스토이로 돌려『만약 톨스토이가 러시아혁명때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생동했을까』라고 묻자 거침없이 『틀림없이 톨스토이는 無政府주의자가 되었을것이다』라고 예상외의 답변을 하기도했다.

톨스토이는 볼셰비키 공산당원이 되기에는 너무나 종교에 심취해있었고 자유주의자였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설사 톨스토이가 볼셰비키당원이 되었다해도 곧 환멸을 느껴 틀림없이 무정부주의자가 되었을것 이라고 단정했다.

소련군부가 앞으로 브레즈네프 후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소련군부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될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후계자선정과정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것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로는 크렘린의 權力투쟁은 20여명 안팎의 최고실력자들이 외부와 완전차단된 상태에서 싸우기 때문에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것이다.

소련에서 군사쿠데타 가능성이 있을수 있느냐고 묻자『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개방사회인 미국과는 달리 폐쇄사회인 소련에서는 모든사건이 일어날수있다』고 이색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톨스토이卿은 『소련인은 전통적으로 西歐에대해 강한 劣等의식을 갖고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때문에 『앞으로 소련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세대는 스탈린등이 소련공산주의 정권수립과정에서 저지른 피비린내나는 야만행위를 서구문화와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흐루시초프 前수상이 회고록을 집필하게된 동기도 자신이 후손들에게 야만인취급을 받지 않으려는데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5일부터 北京에서 中·蘇관계 정상화를위한 副外相급 예비접촉이열리고 있어 앞으로의 中·蘇관계에대한 전망을 묻자 『中·蘇관계는 그런대로 풀려갈것입니다。중공에실용주의노선이 등장했고 소련의 젊은 파워·엘리트들도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요시하고 있지요。이데올로기 紛爭에서 시작된 中·蘇분쟁이 수그러지는것은 당연한일입니다』고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런던에 거주하면서 많은 소련망명객들과 접촉기회가 있어 소련실상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을수 있었다는 톨스토이卿은 소련국민들의 생활상이 날로어려워져 가고있는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영국에 망명한 그의친구인소련의 한 일류배우를 예로 들면서 그친구가 위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40명이 한방에 수용되어야만 했고 식사마저 뇌물을 줘야 제때에 나오는 형편이었다고 전했다.

런던에 거주하면서 활발한 執筆활동을 하는 톨스토이卿의 주요저서는 스탈린의 비밀전쟁」등 소련에 관한 책이 많다。그가조국땅을 밟아본것은 60년에딱 한번뿐이었다.

소련을 다시 방문하고싶어도 소련당국이 그의 저서를 문제삼아 이를 허락치 않고 있기 때문.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金圭澤)초청으로 來韓한 그는「마르크스주의와 오늘의 소련」등의 演題로 4차례에 걸쳐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李炳圭기자】

인터뷰

獨立紀念館건립 安椿生委長

선조의얼 後世에 照明

平和統一 의지 키우게

「독립기념관은 민족수난의 역사전시장인만큼 선조들의 값진 경험과 얼을 담은 독립정기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선열들의 결의와 분발을 보고 익혀 자주평화통일의 의지를 가꾸도록 하겠읍니다」

법인체로 확대개편된 獨立紀念館추진위원회 새위원장에 추대된 安椿生씨(71)는「온국민의 자발적인 힘의 결집으로 기념관을 건립, 외침을 극복하고 자존과 독립을 지켜온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역량을 조명함은 물론 국력배양과 국민정신교육의 道場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시작된지 불과 35일만에 2백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힌 安위원장은「성금대열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볼때 역사적 기념관으로 만들어 국민앞에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미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힌대로 내년중에 기본설계를 모두 끝내 내년11월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건립청사진을 펼친 安위원장은 기획위원 대부분이 본업을 가진채 겸직한 인사들이어서 신속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며 시설·규모·배치등이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백만평으로 계획한 부지는 정부에서 무상제공토록 협조요청중입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꾸미느냐입니다。건물및 조경은 80년대의 국력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營造物로 조성하겠지만 전시할 유물이 초라해서는 안되지요」

安위원장은 선조들이 독립운동당시 사용했던 유품이나 기록은 개인·가정·단체·기관의 소장품수집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도 널리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安重根의사의 친조카인 安위원장은 中國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후 광복군제2지대장과 李範錫장군휘하에서 구대장으로 日軍의 上海공격을 저해하는등 抗日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열혈독립투사이다. 1949년 육사8기 (특채)를 졸업한후 사단장·육사교장·국방부차관보를 거쳐 61년 중장으로 예편한후 9대국회의원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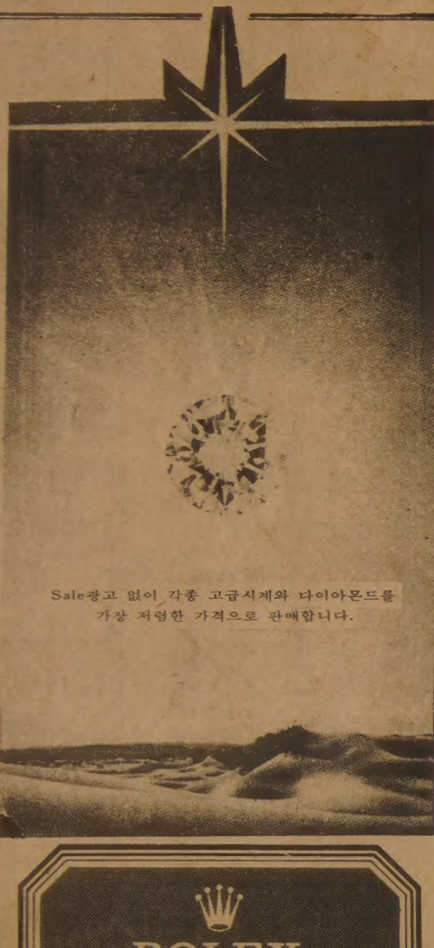
【李】

LANCÔME PARIS

랑콤화장품 보너스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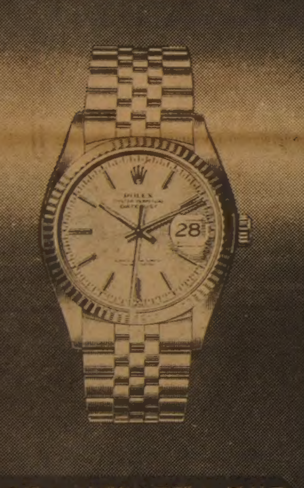
란콤 가을보너스가 도착 했읍니다.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Sale광고 없이 각종 고급시계와 다이아몬드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ROLEX



로렉스 시계는 로렉스 본사로부터 신중히검토 선정된 신용과 전통을 생명으로 아는 보석상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 하 보 석

전화 : 534-9977, 534-7791

주소 : 620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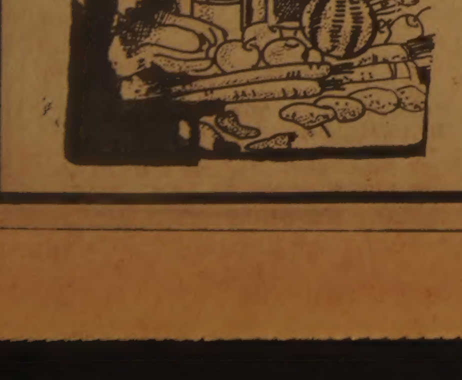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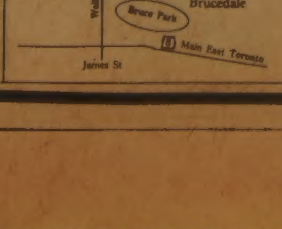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는10월 초순께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 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 · 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 · 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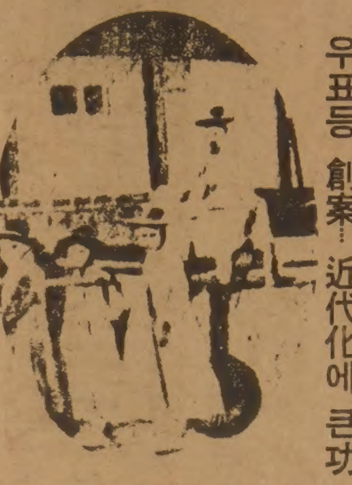
☎ : 243-9544

「獨逸 첫손님」 묄렌도르프 맞은지 100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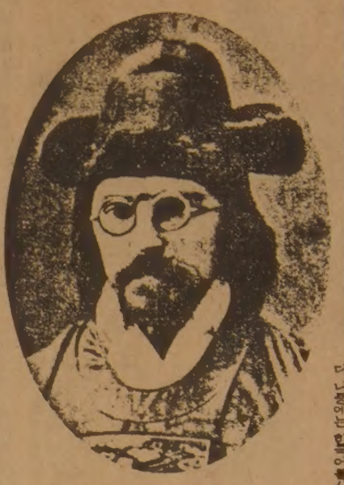
高宗고문 「穆參判」 내일까지 追慕행사

첫알현 때 한국말 사용…감격

우표등 創案… 近代化에 큰功



◇高宗을 알현하러가는 묄렌도르프。



◇한복官服을 입고 찍은 묄렌도르프。

開港外交의 後見役…滿洲語등 學問업적도

◇주한독일대사관 문정관 발터·라이머씨。

[illegible]

한국 中國 人生問題 가족간 意見충돌이 가장많고

「사랑의 電話」통해 본 두나라 相談內容 비교

개통 1주년… 지난 9月 자매결연

性문제와 夫婦갈등등 고민도 비슷

◇개설 1주년을 맞는「사랑의 전화」는 그동안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의 다정한 벗으로 연중무휴 봉사해왔다。

[illegible]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34>

안개속의 집 ①

[illegible]

海外토픽

美, 戰前부터 日암호 해독

★NSA 30년만에 공개

[illegible]

聖地순례후 癌완치

★敎皇廳서 기적을認定

[illegible]

【東京=합】

아크릴렌즈 開發

★日백내장患者수정체代用

[illegible]

Canada Christian College & School of Graduate Studies

사무실

5799 YONGE STREET
WILLOWDALE, ONTARIO
M2M 3V3 CANADA
PHONE: (416) 226-6580

총장: Dr. Elmer S. McVety, M.A., Th.D., D.D.
학장: Dr. Harvey Sparling, B.A., M.A., M.Div., Th.D.

캐나다 국회의원이며, 크리스챤대학 명예동창회원인 로빈슨씨가 소수민족신문인협회를 대신하여 C.N.E.에서 Dr. McVety씨에게 특별상을 보이고 있다.

졸업식 1982년 5월
본강당 -- 252 Bloor St., W., Toronto Canada

대학은 성장을 계속합니다! 파타임 및 풀타임 학생들은 현재 500명이 넘습니다. 금년 우리 몇몇 학급출석생들은 175명이며, 일반적으로 출석생들은 항상 많아지고 있읍니다.

다음 인사는 깊은 감사말을 받은 내용입니다.

캐나다 수상 – 피에르·E·트루도

"나는 금년 캐나다 기독교대학(C.C.C.) 졸업식에 축사를 드림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이 공부하는 연구과정이 상호 인간성의 이해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됨을 안다.

당신들 전부에게, 당신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기원한다"

온타리오주수상 – 윌리암 G.데비스

"캐나다 기독교 대학에서 당신의 연구의 끝냄에 모든 당신가족들, 친구들, 동료학생들과 함께, 이것은 나에 가장 따뜻한 인사를 주는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오늘날 사회의 계속적인 변화와 옛 풍습을 도전하는 와중에서, 신에 대한 신앙심과 신의 가르침의 지식은 우리들에게 가장큰 위안과 힘을 주는 원천중의 하나가 된다. 이것은 당신이 이곳 캐나다 기독교 대학에서 당신의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며, 당신의 미래의 열매도 만족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될것이다.

당신의 1982년 학급생들이 모든선을 사회에게 보다 이바지 할수 있고,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한다"

토론토시장 – 아더·이글톤

"캐나다 기독교 대학 및 대학원생에게 인사드린다"

1982년 5월7일 졸업식장에서 축사드리게 된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된다. 나는 특별히 이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날들을 공부해서 그들의 사명을 인식하고 졸업하는 세계각국을 대표하는 48명 학생들에게 축하하는 것이 기쁘다.

현재 그들은, 그들 커뮤니티에서 좀더 봉사하는 것을 기대한다. 나는 대학의 높은 학문수준및 실질 훈련 프로그램을 칭찬한다. 그리고 나는 이 졸업생들이 수많은 세월 큰 봉사를 위해 기원한다."

국회의원, 돈·벨리동부지역 – 데비드·스미스

〈전문〉친애하는 Dr.맥비티씨와 졸업생들에게 : 1982년 캐나다 크리스챤 대학및 대학생 과정 졸업생들에게 축하드린다. 미래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한다."

캐나다 크리스챤 대학은 성경공부, 종교심리학, 기독교 교육및 일반예술 분야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봉헌한다. "외부학위: 프로그램은 같은수준의 학위를 안내해 주는 100가지 이상코스가 있다.

퀸스 대학교에서 2개의 학위를 획득한 이대학 졸업생중 한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C.C.C.에서 이수한 코스들은 이미 전 대학교과정에서 공부한 과목과 동등하며, 보다 더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다"

학 위

◉준회원학위(신학과정) – 60학점

◉신학학사학위 – 158학점

학사학위를 끝낸 학생들은 우리 대학원과정에 입학할수 있다. 상세한 사항을 다음 학위프로그램에 주해서 송부, 의뢰될 것이다.

신학석사 M.Div.

신학박사 D.Min.

* 우리 학교는 1980년10월21일… 온타리오회사 법인번호 463543에 연방정부 특허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최근에 우리 학교는…공인학교 번호 881996…온타리오교육성에 전 대학교과정(13학년)으로 리스팅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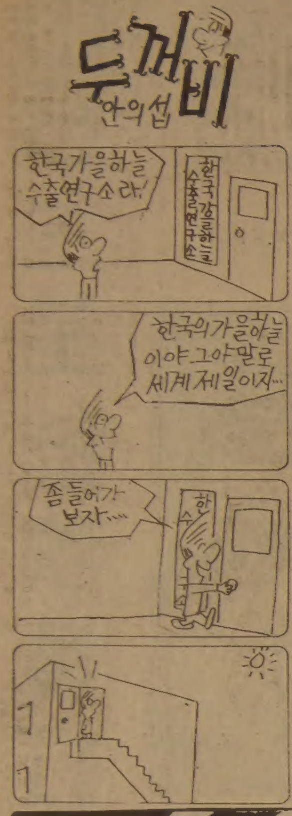
* 또한 C.C.C.는 공식적으로 외국으로부터 학생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카나다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았다. 최근 이민국의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당신의 학교의 이 위임장 의견은 수정한대로, 1976년 이주법 사항, 조건 17조 1항에 따른다." " "

* 학급들은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매 학기마다 가르쳐진다.

대개의 학급들은 252Bloor St. W. Toronto 에 있다.

복음 비중파들의

편지 또는 전화 하십시요!



教育대학도 "좁은門"

내년 新入生 9百60명 줄여

교육대학의 내년도 입학정원이 대폭 줄었다.

문교부가 6일 발표한 전국11개 교육대학의 83학년도 입학정원에 의하면 82년도의 5천5백20명보다 18% 정도인 9백60명을 줄여 4천5백60명으로 돼 있다.

문교부가 매년 늘려오던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이처럼 줄인것은 처음있는일로 ▲국민학교의 취학아동은 점차감소추세 인데반해 ▲교원의이직률은 둔화되고있으며 ▲농어촌영세학급의 통폐합등으로인해 전체교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돼 교원이 남아돌것으로 예상, 이같은 현상을 미리막기위해 정원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번조정에서 입학정원이 가장줄어든 교육대학은 仁川교대로 5학급 2백명이 줄었고 서울교대와 晋州, 公州교대는 각각 1백20명씩이 감소됐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신입생 모집요강도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력고사와 내신 반영률을 7대3으로했고 春川교대가 5대5로 내신비율을 높였다.

또 모집 요강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출신학교장 추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우수교원 확보를위해 면접과 신체검사 기준을 크게강화, 성적에 관계없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될경우 불합격 하도록했다.

신체검사 불합격한 판정기준은 ▲혐오감을 일으키게하는 용모등이 포함된다. 면접내용은 일체 공개하지않기로 했다.

문교부는 현재의 연간교원 이직률3·0%가 87년도에는 2·0%로 둔화할것으로 추정하고있다.

"美國서 金日成승용차 들여온다"

前승려 1명拘束

【大邱】大邱시경은 6일 현재 미국에 있는 북괴 김일성 승용차를 반입한다고 「북괴 金日成승용차 반입추진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9백40만원을 사취한 전대한 불교법화종제9교구 釜山교육원장 許弘道씨(5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許씨는 6·25동란당시 전리품으로 노획한 北傀 金日成의 승용차가 현재 미국에 있는것을 유엔참전협회가 한국에 반입을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北傀「金日成승용차 반입추진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든 후 차량반입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지난79년12월15일부터 80년 6월10일까지 金인환씨(47·濟州市2徒1洞)등 승려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9백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鉛】

美서추방 韓昇熙씨 오늘 金浦통해歸國

【로스앤젤레스支社=邊鴻鎬기자】미스서울 李前政양(28·일명 淳福)과 함께 미국도피소동을 벌였던 韓昇熙씨(28)가 미국 덴버 이민재판정에의해 추방령에 따라 추방돼 7일하오7시(한국시간) KAL 011便으로 金浦공항, 귀국한다.

韓씨는 6일 상오9시20분(현지시간) 미이민국관리1명의 호송을 받으며 덴버공항을 출발, 이날 상오10시50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 한국총영사관에 신병이 인도됐다.

총영사관에서는 가짜여권을 가진 韓씨에게 임시여행증을 발급, 6일하오2시(현지시간) LA공항을 출발, 귀국토록 조치한다.

한편 덴버이민국은 2주후쯤 李양에관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추방담당관도 「본인이 원한다면 李양의 한국행은 틀림없으나 남아야할 이유가 있다면 미국은 李양에게 임시피난처를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道溪광업소서 鑛夫2명壓死

【太白】5일하오 3시30분께 江原三陟郡道溪邑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2갱입구로부터 5백20m지점 막장에서 광부 金옥규씨(33·선산부)와 김점택씨(30·후산부)가 굴진작업중 3톤가량의 암반이 무너져내려 압사하고 유인수씨(26·후산부)가 중상을 입었다.【鉛】

2千년代 어린이에게!

沃川 李宣九군(安南국교) 세계어린이 글짓기大會 2위

만국우편연합(UPU)이 주최하는 82년도 세계어린이 편지쓰기 대회에서 충북沃川郡安南국교 6년 李宣九군(11)이 2등으로 뽑혔다.

유엔 전문기구인 만국우편연합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대회의 금년 주제는 「2천년대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

지난5월 국내예선에서 7만3천2백52편의 작품을 제치고 최우수상 수상자로 뽑혔던 李군은 작품에서 농촌어린이의 눈에 비친 공해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잘 사는 농촌을 그렸다.

◇李宣九군

『나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꼭 4월이 오면 과일나무 1그루를 심었읍니다』로 시작된 편지에서 李군은 『2천년이 되면 이 나무는 그때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아버지도 우마차를 버리고 자동차로 짐을 나르게 될것』이라는등 희망찬 농촌생활을 잘 묘사했다.

李군은 또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를 개울가에 마구버려 그때가되면 걱정이 된다』면서 『2천년대 어린이들에게 맑은 물에 고기가 헤엄치고 푸른산에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수있는 선물을줄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李군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2천년대 농촌이과학화되면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쓰던쟁기를 그때 어린이들에게 선물로주어 지금의농촌살이를 알려주자고 썼다.

농사를짓는 李來雄씨(38)의 2남1녀중 장남인 李군은 탐구력이 뛰어나 금년에는 학교추천으로 과학기술처장관상을 받기도 했으며 전교어린이회장을 맡고 있는 모범어린이.

학교 도서관에서 위인전과 동화책을빌어 보며 상상력을 키웠다는 李군은 『훌륭한 군인이 돼 나라를 지키는게 꿈이라』고 말했다.

李군은 6일 하오7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내한중인 만국우편연합 사무차장 텔렉스·시체로씨로부터 상장과 부상을받았다.【珍】

서울「名門」中高 주변 아파트값 크게올라

汝矣島·盤浦·永東등 프리미엄 최고千만원

위장轉入색출에 "아예 이사"

서울 汝矣島·盤浦·永東등 이른바 명문중·고교가몰려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값이크게 오르고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등 부동산값은 최근 1개월사이에 1천2백만원에서 최고1천5백만원까지 올라 78년이래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것. 이같은 현상은 가을이사철을 맞기도했지만 인플레심리까지겹쳐 최근 1~2개월사이에 한층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는데 부동산전문가들은 그이유를 ▲세칭 명문이 라는 중·고교의 추천 기준일이 임박했고 ▲오는10일부터 위장전입여부를 가리는 일제조사가 실시되기때문에 『그럴바에는 아예 집을사서입주하자』는 심리가 작용해 구매자가 늘고있으나 팔사람이적어 생기고있는 것으로 풀이하고있다. 중·고교의 진학추첨은 중학교가 10월4일, 고교가 10월15일 현재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하고있다.

이른바 신흥 명문여중으로 알려진 S여중이있는 盤浦주변의 住公아파트와 민영H아파트의 경우 지난한달 사이에 평형에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값이 뛰었다.

32평형은 4천3백~4천7백만원에서 요즘 5천5백~5천8백만원까지 올랐고 그나마 매물이 귀하다는것. 봄철에 분양한 江南區狎鷗亭洞의 現代아파트 61평의경우 입주가 되지않은 상태에서프리미엄이 6천만원까지 치솟았다.

新盤浦의 韓信17차(지난5월입주)에 지난4일 이사간 崔모씨(50)의 경우 『프리미엄이 5백8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랐다』면서 27평을 분양가 2천8백54만7천원에 프리미엄 9백만원을 주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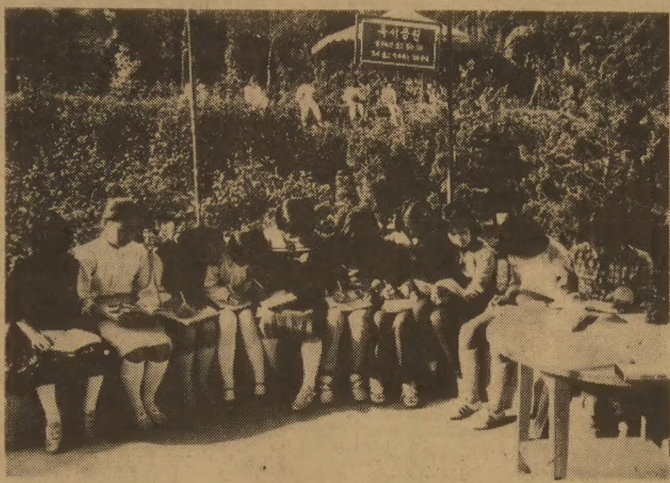
특히 신흥명문고가 몰려있는 永東과 汝矣島중·고교가있는 汝矣島등 인기지역에서 가격상승현상이 두드러져 아파트규모에따라 평당 8만~20만원씩 최근 2개월사이에 평균10%이상 값이 올랐다.

中3의 학부모인 金모씨(42·서울江南區瑞草1洞)는 최근 京畿 서울 徽文 永東高등이 자리잡고있는 江南지역으로 이사하기로하고 집을 고르다가 瑞草1洞으로전입됐다는것.

이와함께 開浦동 신개발지의 아파트프리미엄이 최고1천2백만원(57평형)까지 치솟아 지난달순 정부의강력단속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는 거래는 줄었으나 값은여전히 오른채 단속규정을 악용, 계약만맺고 입주기간이 지난뒤 실제거래를하는 현상까지 생겼다.

가장 값이 치솟은 곳은 내년11월 입주예정인 주공3차분 25평형으로 프리미엄이 1천2백만원에 이르렀으며 미 입주가 끝난 1차분도 평당 1백10만원의시세라는것.

한편 전세가격도 瑞草주공 7·5평짜리 5백50만~6백만~7백만원으로 주택가격(6백50만)의 85%까지 오른것을 비롯 汝矣島·盤浦·狎鷗亭등 인기지역에서 모두 50~60%선을 넘어서 주택가격상승의 강력한 압력이 되고있다.



◇校內숲속의 독서公園 釜山시西구桃亭동 沙下국민학교는 학교뒤쪽 3백여평의 학교림에 각종나무를 심고 숲속에 천막으로 야외독서실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자연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수 있도록해 호평을 받고있다. 이 독서공원에는 각종 사철 꽃나무가 심어져있고 은행·단풍·오엽송등 숲속에 4개의 천막독서실과 1개의노천교실을 갖추었으며 숲속오솔길 길목마다 의자가 놓여있어 학생 혼자나 여럿이 이곳에 들어오면 스스럼없이 책을 펼수 있는 분위기가 돼있다는 것이다.【釜山=鉛】

零細民·失業者 선정訓鍊 中東·阿에 就業시키기로

정부는 전국영세민및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총6천6백46명을, 내년초까지는 모두 2만4백66명을 직종별로 훈련시켜 중동·아프리카등 58개 해외건설업체 사업장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6일 노동부가 집계한 영세민및 실업자직업훈련상황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실업자및 25~40세의 영세민 3만4천5백18명이 직업훈련을 등록, 이가운데 6천6백46명이 선발됐으며 훈련을 이미 마친 2천2백20명중 2백75명이 출국했고 나머지는 출국수속중이라는 것.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해 실시중인 이사업에 목공등 45개직종에 걸쳐 1주일에서최고6개월까지 모두 2만4백66명을 훈련시켜 58개해외건설업체의 해외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취업시킬방침이며 이중 이미 선발·훈련중인 6천6백46명을 제외한 나머지인원은 내년초까지 모두 훈련을 시켜 취업시킬 예정이다.

그런데 이 직업훈련에는 영세실업자 대부분이 중장비운전등 고용조건이 좋은 직종만 희망하고있는 반면 각 기업체에서는 미장·철근·목공등 일반 건축공을 많이 필요로하고있어 선발실적이 부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까지 출국시킬 각 업체별 영세실업자 취업인원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계획인원)

▲진흥기업=524명(635) ▲금호건설=175(200) ▲남광토건=175(475) ▲공영토건=159(475) ▲풍림산업=153(585) ▲삼환기업=123(490) ▲동산토건=106(305) ▲유원건설=93(360) ▲신성(株)=88(125) ▲선경종합건설=72(85) ▲고려개발=22(185)

自轉車타던 國校生 2명 트럭에 받혀 숨져

5일 하오3시께 서울江東區岩寺1洞462의22江南제일교회앞길에서 岩寺洞로부터 리 쪽으로 달리던 大洋화물 소속서울7아2406호8톤 덤프트럭(운전사 李柱喆·22)이 어린이 자전거 1대에 함께 타고놀던 국교생 3명을 치어 文濟桓씨(35·江東區岩寺洞454의28)의 장남 民市군(9·明逸국교3년)과 江東경찰서경비과 소속 鄭錫鎬순경(42·岩寺洞474의18)의 장남 俞鎭군(8·明逸국교2년)이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6일새벽 숨지고 金보한씨(37·상업·岩寺洞476의16)의 장남 鎭坤군(8·明逸국교2년)은 중태다.

운전사 李씨에따르면 1차선으로 달리던중 2차선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뛰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트럭 우측뒷바퀴에 자전거가 끼이면서 20여m쯤 아이들이 끌려가 변을 당했다는것이다.

친구會社돈 챙겼던 20代犯人잡아 令狀

【大邱】大邱중부경찰서는 6일 친구의회사돈 1천여만원을챙겨 달아났던 申瑛哲씨(27·大邱市北區砧山洞3區570)를검거,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申씨는 지난달30일 친구朴모씨(26·大邱市北區砧山洞 성진전기총무과장)로부터 현금 1천85만원이 들어있는가방을 부탁받아 보관하고있던중 朴씨가 다른방으로 잠시 자리를옮긴사이 돈가방을들고 달아난혐의이다.【鉛】

溫泉浴하던 老人 湯內에서 숨져

【蔚珍】5일하오1시께 경북蔚珍郡溫井面溫井里 태백온천장공동탕에서 온천욕을하던 남정환씨(77·盈德郡丑山面釜谷洞74)가 탕내에서 숨져있는것을 종업원 황대권씨(20)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鉛】

다방서 高校生에 淫亂비디오 上映

서울南部경찰서는 5일 고교생을 상대로 도색비디오테이프를 보여준 琴春煥씨(23·光明市光明3洞158의107)를 음화등의 반포등 위반및 미성년자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琴씨는 4일하오9시께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九老區始興4洞21의19복지다방에서 禹모군(17·M고3년)등 이학교 3학년학생 21명에게 60분짜리 도색비디오테이프 에마뉴엘부인을 20분간 상영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됐었다.

경찰은 이 비디오테이프를 보려고 다방출입을 한 21명의 학생들을 연행조사후 훈계방면했다.

琴씨는 지난달께 銅雀區鷺梁津本洞 명화 비디오사로부터 불법복제한 음란비디오테이프를 한개에 2만5천원씩 구입한뒤 추석연휴때부터 저녁9시 뉴스가 끝나고나서 이를 방영해 왔다는것이다.

前議員 韓英洙피고 어제結審 2년求刑

서울지검 李弘검사는 6일 간통죄로 구속기소된 전民韓黨소속 국회의원 韓英洙피고인(47)과 朴仁淑피고인(36)에 대한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두피고인에게 각각 징역2년씩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6월29일 간통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구형2년)씩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선고공판은 오는 20일상오9시30분.

醉中집단폭행 致死

【江陵】江陵경찰서는 6일 권정욱씨(36·東大門區祭基2洞)와 곽용진씨(24·강원溟州郡注文津邑 장성3리)등 2명을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종사촌형제간인 이들은 지난4일 새벽0시20분께 溟州郡注文津邑注文3里 앞길에서 이마을 김영수씨(25)와 시비끝에 金씨를 때려 숨지게한후 달아났었다.【鉛】

5行뉴스

◆사업失敗 비관 漢江투신 6일 상오11시50분께 서울龍山區제1한강교 세번째난간에서 尹升範씨(37·건축업·경기光明市光明洞158의62)가 사업에실패한것을 비관, 50분동안 자살소동을 벌인끝에 15m아래 한강으로뛰어내렸으나 미리대기하고있던 수상구조대에의해구조됐다.

前貿協회장 李活씨

학교법인高麗中央학원이사장인 李活박사(사)가 6일하오4시 서울中區新堂洞251의68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4세.

李박사는 1899년 경북永川에서 출생, 일본와세다대학정치경제학과, 영국런던대학경제연구과를 수료한뒤 해방후 과도정부입법위원과2, 3, 4대 무역협회장, 6대국회의원을 거쳐 현재高麗中央학원 재단이사장으로 재직중이었다.

李박사는 우리나라 내외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금탑과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南浩珍여사(73)와 장남 李秉韓씨(68·우진건설사장)씨가있다.

장례는 8일상오 경제4단체 경제인장으로 거행되며 장지는경기龍仁郡 가톨릭묘지. 연락처☎300-5☎6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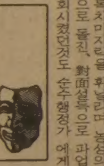
「누님長官」 "통큰아주머니" 金正禮 保社

"취임초의 꿈결…지금은 어떤가요"

金正禮보사부장관에게 「누님」이라는 호칭을붙인다해서 결례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장관 스스로가 기회있을때마다 기자들에게「동생같고 조카같아서 귀엽고사랑스럽다」고 공언하고있기 때문일까.

「누님장관」에게서는 행정가라기 보다는 통이큰 아주머니의 풍모가 강하게 느껴질때가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파동으로 전국약사들이 파업을 결의했을 때도 한복치마자락을 휘날리며 농성의현장으로 돌진, 對面설득으로 파업을 철회시켰던것도 순수행정가 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실적」이라는것이 주변의 評이다.



果川청사구내식당에서 들을 수 있는 누님장관의 목소리는 매우 우렁차고 굵직하다. 「사랑」「대화」「터놓고 얘긴」「이해」등이 그녀가 즐겨쓰는 상투어들이다.

제5공화국의 출범은 누님장관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분수령을 형성하고있다. 오랜 세월동안 「민권운동」등으로 어두운 在野에서 쉿소리를 내오던 그녀는 민정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李·張어음파동의 정치적 뒷마무리를 위한 대폭개각에 따라 보사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장관에 기용되던날 누님장관은 「꿈길이 아니냐」며 주위사람들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황홀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얘기도 있다.

의사·약사·간호원·행정가등전문가직종들이 모여 독특한 전문관료사회를 형성하고있는 보사부에서 전문가도 행정가도아닌 누님장관의 존재는 매우 이색적이다. 장관이특정 전문가로서의 한정된시야를 벗어나 있다는것은 좋은일이지만, 장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힘이 좀든다는편」이라는 간부들도있고 행정스타일이 「투박하다」는 평도 있는 형편이다.

보사행정은 국민생활의 質과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시시콜콜하고 오밀조밀해야만 행정의 감칠맛이나게 마련이다. 누님장관은 기회있을때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고있는데 「사랑의 경륜」을 행정의현실 속에서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닌모양이다. 최근에는 對국회관계까지 겹쳐 얼굴에 피로의 기색이 엿보일때까지있다.

복지사회를 향해가는 가시밭길에서 길을 헤치기에는 「對人설득」도 필요하긴 할 것이다.【金薰기자】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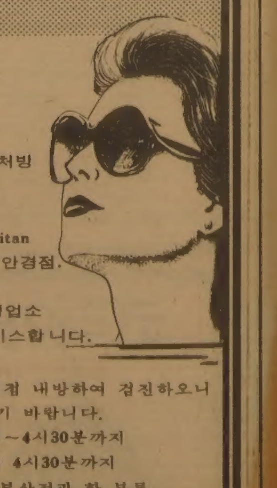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저를 아끼시는 웃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재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OB·三星 拙攻·貧打의 4시간35분

勝負못가린「미련한 싸움」

코리안시리즈 15回연장서 비겨 1次戰 노게임

◇OB 尹東均의 세번째홈인 OB의 3번째 득점。5회말 2루타를 치고나간 尹東均이 3번 金宇烈의 우전안타로 홈인, 3점째를 올리고 있다。【大田=韓隆기자】

안타數 12대3에 득점은 3대3

【大田=方錫鉤기자】프로야구 첫 패권을가리는 코리안·시리즈 1차전은 OB와 三星이 15회까지 4시간 35분의 격전을 벌였으나 3-3으로 비겨, 노·게임이되었다。따라서 1차전은 승부에서 제외되어 6일하오 大邱에서 열리는 게임을 1차전으로 계산하게된다。이날 15회까지의 안타수에서는 OB가 12-3으로 우세했으며 양팀의 경기내용은 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못했다。

5일 OB홈구장서 벌어진 OB와 三星의결전서 OB는 1회말 집중3안타로 2점을 선제한후 5회말 2안타로 1점을가산, 3-0의 리드를 잡았다。三星은 OB의 선발 姜哲元에게 무안타로 눌리다가 成學洙의 첫안타이자 2점홈런을날려 추격을 벌인후 9회초 裵大雄의 두번째안타인 중월2루타로 1점, 모두 2안타로 3점을만회하는 경제적인 야구를펼쳐 연장전까지 벌였다。

코리안·시리즈는 7차전을 벌여 어느팀이든 4先勝을해야 하기 때문에 비기는 게임은 승패에 계산할수 없게 되어 있다。정규 시즌서는 연장 15회까지 무승부가 되면 무승부로 인정된다。

이날 OB는 예상을 깨뜨리고 姜哲元을 선발로 기용한 것이 적중했다。姜은 절묘한 언더드로로 三星 타자들을 요리했다。반면 三星의 에이스 權永浩는 1회말부터 집중타를 얻어맞고 휘청거렸다。

OB는 타선의 대이동을 단행, 3번이던 尹東均을 톱타자로 기용, 초반 三星의 허를 찔렀다。OB는 1회말 尹東均이 안타로 찬스를 만들고 2번 千普成의 보내기번트로 2사, 2死후 4번 申慶植의 좌익수 오른쪽으로 빠지는 통렬한 2루타로 선취점을 빼내고 5번 金裕東의 중전안타로 1점을 가산했다。

OB는 5회말에도 尹東均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3번 金宇烈의 우전안타가 이어져 1점을 추가, 승기를 잡는듯 싶었다。

5회까지 姜哲元에게 무안타로 눌린 三星은 6회초 3번 吳大錫, 4번 李萬洙가연속 포볼을 골라 무사에서 맞은 1、2루의 찬스서 더블·스틸을 감행하다 李萬洙는2루에서 아웃되었다。

그러나 5번 成學洙는 吳大錫을 3루에 두고 첫안타인 좌월 2점 홈런을 날려 3-2로 추격했다。

三星은 9회초 선두 6번 鄭鉉發이 10개째의 포볼을고르고 패퇴 직전에 몰린 2死후 9번 주장 裵大雄이 중월 2루타로 역투하던 姜哲元을 강타, 3-3의 동점을 만들었다。

裵大雄의 타구는 정상수비를 펼 경우 평범한 플라이로 잡을수 있는것이었으나 승리를 확신한 OB수비진들은단 만의 裵에 과민한 전진수비를 펴며 2루타를 허용하고 말았다。

OB는 10회부터 좌완鮮于大洙을 구원계투시켰으며 三星은 10회말 2사 1、2루의 고비서 릴리프黃圭奉이 金裕東파울볼에맞은 포수 李萬洙를따라 머아웃으로 들어갔다가 자전지시로 갔주되어 역시 李善熙에게 마운드를넘겨야했다。

◇제1차전

삼성 000 000 200 1…0 | 3
OB 200 010 000 0…0 | 3

▲홈런=成學洙(6회초·2점·삼성)〈15회연장〉

金奉淵 21·22號홈런

▲광 주

롯데 000 000 101 | 2
해태 000 011 10× | 3

▲홈런=金俊桓(6회)金鍾允(7회·이상해태)

롯데 000 000 100 | 1
해태 000 341 10× | 9

▲홈런=金奉淵(4회·2점, 5회·3점) 趙忠烈(5회) 金宇根(7회·이상해태) 朴庸成(7회·롯데)

오늘 公開스파링 金成南 東京도착

【東京=聯】프로복싱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플라이급1위인 金成南이 오는10일 도오꾜시내 고오라꾸엔(後樂園) 특설링에서 WBA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인 日本의 도까시끼·가쓰오(渡嘉敷勝男)와 타이틀전을 갖기위해 5일 도오꾜에 도착했다。

金成南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개월간 1백라운드의 스파링을 가졌다고 말했다。

金은 6일 공개스파링을 가졌다。

한편 도까시끼는 이날 2라운드의 공개스파링을 갖고 상대선수의 안면과 몸통에예리한 레프트훅을 퍼부었다。日本의 前WBA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구시껜·요오꼬는 이날 도까시끼의 공개스파링을 지켜본뒤 도까시끼가 10일의 타이틀방어전에서 金成南의 레프트·스트레이트와 어퍼커트를 조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오픈卓球 韓一銀여자팀 派遣

대한탁구협회는 제10회 이탈리아 오픈탁구선수권대회(29일~11월1일 밀라노)에 韓一銀行여자실업팀을 파견키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秋季리그 大學야구 홈런戰 20게임서 41개 쏟아져

대회5일간 20게임에서 41개의 홈런을 터뜨리고 있는 추계대학야구리그전은 B조의 東亞大만 제외하고 준준결승 진출팀을 가리지 못한 채 예선리그 막마지 혼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서울운동장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경기서 延世大는 成均館大와 9회초까지 홈런 2개씩을주고받으며 4-4의 접전을 벌이다 9회말 5번金文映이 좌월굿바이 홈런으로 5-4로신승, 3승으로 C조단독선두에나섰다。이로써 延世大는 남은 建國大와의 경기서 비기기만하더라도 준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고지를 점령했다。

◇제5일전적 (6일)

▲A조

중앙대(2승2패) 000 000 000 | 0
인하대(1승1무1패) 010 300 000 | 4

▲B조

영남대(1승2패) 000 000 001 | 1
동국대(2승1무1패) 000 011 11× | 4

▲홈런=李政男(7회·동국)

단국대(4패) 010 010 010 | 3
동아대(4승) 000 000 123 | 6

▲홈런=趙善探(9회·3점·동아)

▲C조

건국대(2승1패) 100 104 110 | 8
한양대(3승1패) 033 032 00× | 11

▲홈런=金聖宰(6회)安昌完(7회·이상건국)

성균관대(1무3패) 100 010 002 | 4
연세대(3승) 000 200 021 | 5

▲홈런=權寧台(1회)李淵守(5회·이상성대) 朴哲永(4회·2점)金東再(8회·2점)金文映(9회·이상연대)

한국女子 4強리그 先着

남자는 쿠웨이트大破 2승

【마닐라=李基洪특파원】제7회 아시아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여자팀은 6일 예선리그 4차전에서 홈코트의 필리핀을 92-31로 대파하고 4승으로 단독선두에나서 상위 4강결승리그 진출이 확정됐다。

이날 한국은 金英姬(6점) 李美子(7점) 金銀淑(16점) 文敬子(10점) 成貞兒(17점)를 스타팅멤버로 기용, 단신의 필리핀을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전반을 46-13으로 끝냈다。필리핀은 단신인데다 기동력이 모자라 한국의 상대가 되지못했다。

한국은 최장신 金英姬를 이용한 포스트플레이와 단신가드 金亨淑(1m58)의 재치있는 어시스트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제4일 전적

▲여자부

한국 92 (46-13, 46-18) 31 필리핀
(4승) (3승1패)

◇제3일 전적 (5일)

▲남자부 B조

한국 107 (55-15, 52-17) 32 쿠웨이트
(2승) (1패)

한국、브루네이꺾어 싱가포르 國際축구

【싱가포르AP=聯】한국은 5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메리온컵축구대회 1차전에서 브루네이에 4-1로 승리했다。

한국은 전반서 吳錫載가 두골을 넣어 전반을 2-0으로 앞섰고、후반 들어 朴潤基 李太燁이 각각 1골을 추가했다。

이날 말레이지아는 싱가포르를 1-0으로 물리쳤다。

◇첫날전적

한국 4 (2-0, 2-1) 1 브루네이
말레이지아 1-0 싱가포르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 하셨읍니까? 한국일보 독자부 ☎ 533-2361

한국식 당구대를 원하시는 분

(코너에 구멍없음)
*아래주소로 연락바랍니다.
※고급 품질로서 봉사합니다.
King Edward Billiard Supply Ltd.
15-1421 St. James St.
Winnipeg, Man. R3H 0Y9
☎: (204)775-808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큐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CHINA HOUSE, Bathurst, Bayview, Bloor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Queen, Temperance St., Bay, Yonge, King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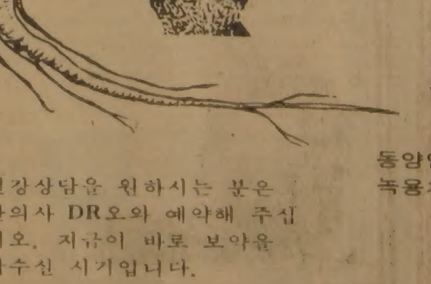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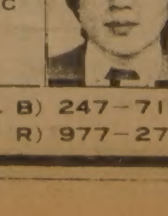
Richard Y.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왕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굴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심미리사 BAND 기타: 신상치
올겐: 한효상
드럼: 권순산
월~목: 오후2시~새벽2시
금: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30PM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都市人口정책상 歸省인구를 못들어오게하면 어떻게 될까… 안의

M16총들고 다녔어서 충분했을텐데… 안의

첩첩산중마을에서 博士풍년

任實郡 三溪面 5개마을 「자랑스런 농군의 아들들」

陽村 許씨4명、豊山盧씨 4명등

산골 마을에서 박사가 15명이나 배출됐음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있다。화제의 마을은 노령산맥 줄기에 있는 전북 任實郡三溪面。全州에서 17번 국도를 따라 南原쪽으로 40㎞정도 달리면 오른쪽으로 任實郡屯南面獒樹里에서 淳昌郡東溪面으로 가는 길목이 나오고 여기서 비포장도로를 따라 7㎞쯤 더 가면 1천4백여가구가 살고 있는 화제의 마을이 있다。三溪面 16개마을중 박사가 가장 많이 배출된 마을은 德溪·後川·魚隱·硏川·半月등 5개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야산을 개간해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있는 가난한 농군들이다。

◇許弘旭씨 (경제학박사) 대학졸업때의 가족사진。

조상대대로 향학열 높고
朝鮮중엽 낙향한 後孫들

◇許世旭학장。

더구나 이 마을 출신중 현재 5명이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으며 서울大재학생 16명을 포함, 80여명의 대학생이 있어 향학열이 어느 고장보다 뜨거움을 알수있다。박사가 많이 나온 三溪面 德溪里의 경우 陽村 許씨가 4명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유학자이며 촌장격인 許■옹(77·德溪里563)은『우리 문중의 자랑거리야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오늘날 그처럼 많은 박사가 나오기까지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납득이 갈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조 중엽 당파싸움이 극심할 때 이에 환멸을 느낀 선비들이 이곳 任實로 낙향해 후손들 교육에만 힘을 기울였다』고 許옹은 설명했다。

外大 동양어대학장 許世旭 박사(48)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시절이었지만 초가 사랑채에서 문중형제나 동네아이들이 선생님을 모셔다 공부했다』고 말하면서 「百世淸風」(백년대대로 맑고 깨끗한 바람처럼 살라)이라는 가훈을 잊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三溪面은 조선조 世祖때 단종의 왕위복귀를 꾀하려다 실패, 세상을 등진채 산중에 숨어살던 생육신 柳誠源의 사당이 모셔진 곳으로 유명하며 慶州 金씨, 清州 韓씨, 海州吳씨, 順天金씨, 延安金씨, 慶州鄭씨, 慶州李씨등의 중·시조(中·始祖)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산좋고 물맑으며 인심이 후해 죽어서 묻힌다는 「死去後任實」

燕山·光海학정피해 許씨·盧씨들이 정착한 산골마을
형제·사돈박사에 夫婦박사도…서울大재학생도 16명이나

이란 말이 전해내려오고 있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으로 촌로들은 풀이하고있다。後川里의 豊山 盧씨 문중에서도 4명의 박사가 배출됐는데 이 문중도 경상도 慶陽에서 13대조인 蘇씨가 光海君의 학정에 시달려 이곳으로 옮겨와 정착했다。炳奎옹(79)은 『일제때 任實郡내 대학출신 2백명중 1명이 우리가문 출신이며 해방후 군내 30명, 대학생중 20명이 三溪面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後川里출신이 12명이나 됐었다』고 자랑했다。이들 2개마을들도 20여년전만해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사를 주업으로 버티어왔다。그러나 요근래엔 이농현상이 심해져 지금은 20여가구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이밖에 魚隱里·硏川里에서도 희귀성만큼 韓씨와 沈씨가 한두사람씩 박사학위를 획득했다。이들 모두가 가난한 농가출신임은 물론이다。

◇박사가 4명이나 나온 농촌마을 德溪里가 멀리 보인다。

◇마을유래를 들려주는 許■옹(77)。조카가 4명이나 박사다。

특기할만한 일은 許正旭씨(육사교수)와 弘旭씨(재미)가 친형제 박사이고, 韓相震씨(서울大)는 같은 마을 沈씨가문 출신 부인을 아내로 맞아 사돈간이며, 金장수씨(재미)는 부인도 박사라 부부박사로 유명하다。

현재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일하고있는 三溪面출신 박사는 다음과같다。

▲許世旭(48·외국어·문학박사) ▲應旭(42·재미·의학) ▲定旭(41·육사·공학) ▲弘旭(37·재미·경제학) ▲盧相舜(59·전북대·공학) ▲相柴(43·미국립연구소·공학) ▲相奎(40·재미·공학) ▲煥成(43·약학) ▲金學允(35·재미·경제학) ▲許錡(37·재미·경제학) ▲李상춘(48·의학·개업) ▲金장수(27·재미·공학) ▲沈希澤(서울대·약학) ▲韓成洙(48·의학·개업) ▲相震(37·서울대·사회학) ▲韓沈모씨(독일)씨등인데 그 가족들의 이동때문에 정확한 신상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다。

〈任實=李金灌기자〉

토론토시 모국어교육을 위한
대표선출

토론토에 있는 초등학교학생들에게 모국어 프로그램에 의해 주2시간반의 한글교육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이 교육이 토론토시 교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교과정·교원배치·예산등에 관해 모국어교육자문위원회가 자문하고있으며 이 위원회는 토론토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고 있읍니다.
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국어대표의 선출은 다음의 요령에 의해 시행됩니다.
★날자 : 1982년 10월23일
★시간 : 오후 3시
★장소 : 교육쎈터 155 College St, 6층
◉투표유권자는:
(가)해당문화출신(자녀가 한글교실에 등록하고있으면 차한에 부재)
(나)토론토시교육위원회를 지지하는 납세자거나
(다)토론토시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글교육에 참여하고있는 자녀의 부모
◉후보자의 자격은:
(가)한국계 카나다인이거나 한글교실에 자녀가 등록되어있는자.
(나)메트로토론토내의 거주자, 가급적 토론토시내거주자
(다)토론토시교육위원회의 피고용자(파트타임 또는 풀타임)는 제외된다.
더 자세한 것은 598-4931 구내(ex.3346)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글교육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드림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취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537-3104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내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사건記者 수첩

<그림·權大雄>

신문에 안난 現場

주먹 센 여자들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3개월 동안에 마을 남자 15명을 두드린 30대의 「주부 주먹」과 연적(戀敵)을 호텔에 감금하고 떼주먹을 날린 「처녀주먹」이 그들—。 이번주 「기자수첩」은 살인 벌 공포로 다익은 밤을 못따고 있는 三千浦의 이변과 야구부 장비를 학생회비로 사들이곤 꾸지람이 겁나서 4개월간 가출、머슴살이를 한 동심들이 메모됐다。

戀敵을 비롯 남자들 때려 누인 「처녀주먹」「주부 주먹」들 철창신세

■2백년된 거북이발생

▲두달전인 지난 7월27일 鬱陵島 근해에서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 생포됐던 2백년 묵은 거북이 잡힐 때 입은 심한 상처로 사경을 헤매다가 극진한 간호를 받고 되살아나 지난달 25일 상오 10시40분께 仁川항앞 八尾島 근해에서 방생됐다。

동이 검은 이 거북은 길이가 1백12㎝、너비 97㎝、무게 2백㎏의 큰 것으로 그물에 걸렸을 때 배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어 죽어가고 있었다는것。

이 거북은 박제용으로 팔려 나가려는 것을 서울에 있는 廣東제약(대표 최수부)에서 60만원에 사들인 다음 두달 동안 삶은 옥수수와 쇠고기를 갈아 숟갈로 떠먹이는등 정성을 다해 살려낸것。

이날 상오10시 仁川 연안부두에서 유람선에 실려 八尾島까지 이른 거북은 건강을 되찾은듯 바닷물을 힘껏 헤치고 기쁜 몸짓을 하며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식육점 경영하는 여인이 외상값을 안낸다고 패…

▲慶北聞慶경찰서는 지난 25일 걸핏하면 남자들에게 주먹질을해온 李玉粉씨(32·여·문경군 농암면 농암리130)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 여인은 지난 7월28일 하오4시께 자기가 경영하는 농암식육점에서 고물행상을 하는 같은 마을 李재민씨(38)가 외상 술값 4천1백원을 갚지 않고 자기집에도 자주 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李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꼬집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22일엔 이 마을 유동우씨(36)등 2명이 막걸리 1되를 마시고 5백원을 내면서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하자 『무슨 거스름 돈이냐』며 유씨를 마구 때렸으며、9월14일에는 같은 마을 白호일씨(38)가 李여인 집을 수리하다가 李여인의 아들을 나무랐다고 나무막대기로 白씨의 머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히는등 치나간 3개월 사이에 15명의 마을 남자들을 때렸다는 것이다。

李여인의 조사담당 경찰관은 『이런 여자가 한마을에 둘만 있으면 배겨낼 남자가 없을것』이라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

■애인만나자 갈비구타

▲全南光州경찰서는 지난 24일 연적(戀敵)을 납치、호텔방에 가두고 친구들을 동원、집단구타한 千모양(22·전남광산군비아면)과 千양의 친구 朴모양(21·광주시동구학림동)등 20대 처녀 7명을 불법감금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千양은 자기의 애인인 崔모군(22·C大 농대3년)을 최근 金모양(21·광주시동구학림동)이 자주 만나자 지난 20일하오1시께 『만나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며 金양을 광주시동구학림동 D다방으로 불러낸뒤、택시에 태워 C호텔206호실로 끌고가 감금시켰다는것。

千양은 朴양등 친구 6명을 호텔로 불러들여 金양을 목욕탕에 가둔뒤 옷을 벗기고 집단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들은 광주시북구신안동 D여관에 숨어있다가 21일 새벽5시께 호텔을 겨우 빠져나간 金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千양은 경찰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金양이 자주 만나자 화가 나서 이같은 짓을 했다』면서 후회의 눈물。

■동료사고 허위신고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지난23일 직장동료가 낸 교통사고를 자기가 낸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한 姜哲煥씨(25·서울강남구반포동539)를 범인은닉혐의로、사고를 낸 운전자 朴承鳳씨(26·서울도봉구월계동392의51)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21일 새벽 4시반께 서울강남구방배동 영진운수 주식회사 차고에서 동료운전사인 朴씨가 서울9바1111호 20톤 트레일러를 끌고나오다 조수인 조대규씨(20)를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히자 朴씨 대신 자신이 사고를 낸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사고조사에 나선 경찰은 조수인 조씨의 직업이 상점점원으로 허위신고된 경위를 조사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姜씨는 경찰에서 지난 2일 全南 光州에서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있는 朴씨가 사실대로 신고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이 가중될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차에 치인 조수 조씨가 자동차종합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회사간부와 상의、자신이 거짓신고를 하게 된것이라고 진술。

사고자가 숨기려 거짓신고

가출 소년 養子됐다 귀가

▲釜山市東萊區巨堤洞 양모군(12·K국교6년)이 학생회비에서 1만2천원을 제맘대로 써버린뒤 부모와 선생님의 꾸중이 두려워 지난8월10일 집을 나가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40일만에 부모품으로 돌아왔다。

K국교 학생회장인 양군은 자기 마음대로 야구부장비를 사들이는데 학생회비를 사용한뒤 꾸중이 두려워 친구인 같은 반 河모군(12)과 함께 가출、大邱등지로 떠돌아다니다 가출 이틀날인 8월11일 天安에 도착、역광장을 배회하던중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朴基星씨(51)를 만나 함께 지내왔었다는 것。

忠南唐津이 고향인 朴씨는 외롭게 살다가 양군을 만나자 양군의 이름을 「박영일」로 지어주고 아들로 삼아 天原郡목천면동리 柳모씨 집에서 함께 머슴살이를 해왔다。

그러던 중 양군과 같이 집을 나갔던 河군이 귀가、양군의 행방을 알려줘 경찰이 수소문끝에 지난 21일 양군을 天原郡에서 찾아냈는데 양군은 『새 아버지가 너무나도 잘 대해줘 차마 뿌리치고 돌아갈수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도둑이 훔친 금반지 2개를 입으로 꿀꺽 삼켜버려 범인을 병원에 데려다 X레이 촬영을 하는등 한때 법석。

지난달 22일하오3시께 서울성북구성북동에 주소를 둔 白南洙씨(26)가 忠北提川市의림동4통4반 林鍾淑씨(37·여)집에서 일제 소니 녹음기1대(싯가25만원상당)와 금반지등을 훔쳐 나오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자 갖고있던 금반지 2개를 목구멍으로 삼켜버렸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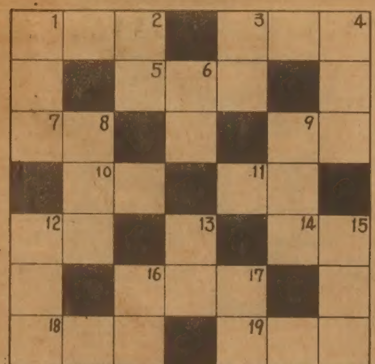
경찰은 범인 白씨가 삼킨 금반지를 빨리 되찾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촬영을한뒤 白씨에게 설사약을 먹이고 용변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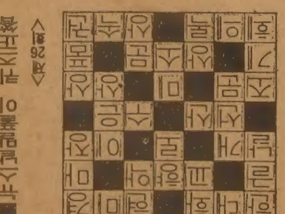
▲서울江南경찰서는 지난 22일 安모군(23·S大 영문과4년)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군은 누나 친구인 李모씨(38·여·강남구논현동)로부터 李씨의 장남 林모군(13·S중1년)이 영어실력이 부족하니 23일에 실시될 월말고사에 대비、영어를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3일과 20일등 두 차례 林군에게 중학교1학년 영어교과서를 가르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安군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판사가 사안이 가볍고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6회 퀴즈>





■가로 <힌 트>

1. 8회말, 전국의 야구팬을 열광시킨 사나이
3. 아주 작은 물체를 확대하여 보는 장치
5.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음악의 총칭
7. 李箱의 소설
9. 무덤을 옮김
10. 조상의 묘가 묻힌 곳
11. 액체의 금속
12. 條目을 적은 글
14. 마음속에 형상을 그림
16. 임금에게 올리는 글
18. 회의의 전말을 적은 기록
19. 재산을 이어받을 법률상의 권리

■세로

1、10월9일
2、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
3、현을 타거나 켜서 소리를 냄
4、서울마장동에 있는 오래된 레저시설
6、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
8、독립문 만들때 이것을 본뜸
9、가고파의 작사자
12、축구·배드민턴등 아침마다…
13、소리를 내지 않고 방긋이 웃는것
15、상품을 교환할수 있는 상점발행의 티키트
16、항시 푸름
17、남의 흉사에 조의를 표함

숨은그림 찾기

구성·장태산

별주부전

옛날 남쪽나라에 광리왕이라는 용왕님이 있었읍니다。 이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도무지 낫지를 않았읍니다。

한데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오자서의 말을 듣고 별주부라 불리는 천년묵은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하여 육지로 향하였읍니다。

숱한 고생끝에 토끼를 용궁까지 속여서 데려왔으나 꾀많은 토끼는 별주부를 속이고 도망을 하였읍니다。 하긴 자가의 간을 빼낸다는 일은 곧 목숨을 잃는다는 일인데 그 누가 그런짓을 하겠읍니까。

우직하고 순진한 우리의 별주부도 토끼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데 이때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을 치료할 약을 전해주고 사라졌다 합니다。

<작품속에서>

■숨은 그림

오토바이, 돋보기, 오리, 활, 전화기, 검은 고양이, 물음표, 권투장갑, 연탄집게, 생선, 우리나라지도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희소식
비데오 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률 50% (기게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게를 책크·업하고 교환해 줌.
⊙바라어티 가게, 밀-스토어, 레스토랑 그리고 간이음식점에서 성황중.

TRANS AMERICAN
☎ : 636-0906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문제추적 빌딩 세우기만 하면 다냐

都心景觀 해친 高層건물들…名物 10개選定 종합診斷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 고층건물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경관등에 많은 문젯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층만을 고집한 결과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소홀히 했는가하면, 서울의 명물인 南山을 이들 고층건물이 둘러싸 시계(視界)를 흐려놓고 있기도 하다. 週刊한국은 서울의 명물빌딩중 임의로 10개를 선정해 건축관계 전문가 7명으로부터 빌딩의 위치·경관·설계·시공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 진단해 보았다.

企劃취재

◇명동중심가의 명물건물로 평가받고 있는 한일은행 본점。

◇서울시민의 광장을 뺏고 위압자세로 버티고 있는 서울시청앞의 프라자호텔。

現代건설 社屋·敎保빌딩등 들어선 光化門一帶의 마스터 플랜 잘못돼

南山에 들어선 호텔·아파트 視角장애물

光化門주변엔 세종문화 회관과 교보빌딩, 현대건설사옥등이 서로 웅자를 자랑한다.

연건평 1만6천1백평의 세종문화회관은 한국의 전래 건축 양식을 현대 감각에 잘 맞게 지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지막한 기단에 8각주의 연주가 들어서고 정면은 만자형(卍字型) 창살로 돼있어 예스럽게 보인다.

개석 4천2백40석규모의 대강당은 음악, 무용, 연극, 영화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회의를 할수 있게 꾸며져 있다.

특히 5백평의 무대에는 최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그리고 5개국어 동시 통역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은 동양최대의 다목적 문화회관이란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경관면에서 세종문화회관은 특히 멀리서 눈여겨볼 때 허술함을 여러 곳 보여주고있다.

우선 지붕 처리의 조잡한 면이 드러나 보이고 있고 건물이 도로변에 툭 튀어나와 입구공간을 전혀 고려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 문화전당에 입장하면서 길거리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한 것은 뭔가 건축 전체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뒷면의 공간으로 건물을 조금만 물려앉혔더라도 이런 현상은 없었을것이다.

따라서 입장자들에게 여유를 주면서 회관으로 유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것이다.

이런 예는 세종회관 바로옆에 지어져있는 현대건설의 사옥을 보면 더 심하다는것을 곧 알수 있다.

朴대통령 당시에도 이 건물은 光化門의 팔불견으로 지적돼 국내 건축계에 큰 문제가 일기도 했었다.

이 건물을 보고 서울시내 건축사들은 한결같이 졸작중의 졸작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도심경관과 자연경관을 그렇게도 철저히 무시하고 지어진 건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26층 규모의 교보빌딩(연면적 2만7천8백60평)도 光化門의 위치에서 볼 때 그렇게 경관을 잘 고려했다고는 볼 수 없다.

건물내부는 최고급 자재를 써 나무랄데는 없으나 외양면에서 측면이 막혀 있고 외부 벽면이 단조로와 답답한 감을 주고 있다.

도시건축이 동적인 균형을 살리는 것이라면 교보빌딩은 정적인 균형을 이뤘다고 평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보는 도시의 기하학에서보다 자본의 산술에 의해 재단된 작품으로 불려질만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말.

한 전문가는 光化門에 교보가 들어섬으로써 光化門 본래의 도시적 입지가 소멸됐다고 한탄한다.

더구나 光化門 네거리에 일본적 감각이 깃든, 일본에 있는 미국의 주일대사관과 같은 건물이 들어선것은 一대지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이곳은 北岳山과 仁旺山, 그리고 南山으로 이어지는 요지이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다움을 만들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보빌딩자체는 일본적 격자와 선들로 구성된고 입구의 트임을 동쪽의 옥내 그린하우스로 끌고 나간것은 훌륭하다고 평한다.

그렇지만 교보는 누가봐도 건축술의 교과서적 이해로 끝난것같고 또 내부의 화려함을 보면 자본선심의 비정을 보는 것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위에 16층 이상의 전기통신공사건물(공사중)이 들어서는 것도 광화문의 입장에서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일대의 마스터 플랜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민의 안식처가 되는 南山을 외국인이 설계한 호텔과 외인 아파트등이 들어서 시야를 막고 경관을 해치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건축업자는 소나무를 괴롭히는 송충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야트호텔의 경우 南山의 남쪽 경관을 가로 막고 있고 외장을 반사유리(미러글라스)로 처리해 시각적으로 저항감을 느끼게 하고있다.

햇빛에 반사될때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상의 차량운전사들은 한결같이 시각 장애를 인으키게 하고 있는것이다.

또 그 위에 지어진 2동의 외인 아파트와 장충단쪽의 신라호텔, 서울역쪽의 힐튼호텔(현재 공사중)등도 南山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건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전문가들은 이들 건물들은 호텔과 아파트기능으로서는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南山을 뒤로한 스카이·라인과의 복합성을 따질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건축에 있어서의 스카이·라인은 기본요건이기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서울도심쪽으로 들어와서도 흔히 볼수 있다.

프라자호텔 시민의 廣場외면 都市질서·軸파괴

한양 투자 거울 유리사용 시각장애물로 登場

서울시청앞에 위압적으로 버티고 있는 프라자 호텔이 그 대표적이다.

이 건물은 한마디로 도시 질서와 도시축을 파괴한 건물이라 아니할수 없다.

건물의 고도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민광장으로 쓰이는 공간을 전혀 외면한채 그늘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시당국의 허가요건이 문제되겠으나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런 점은 감안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 안한것은 건축행정의 졸속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의 어느 광장 주위를 보아도 시민광장 부근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이 건물은 상업적 측면에서 볼 때는 흠잡을데 없으나 동서로 길게 뻗쳐 시계를 앞뒤로 막으면서 주위의 덕수궁을 무시한듯한 인상이 짙다.

또 서울역앞의 대우빌딩(25층)은 내부시설면에선 수준급이지만 외부 벽체의 창처리는 건물크기에 비해 너무 자게 되어있어 시각적으로 답답한 기분을 들게 하고 있다.

◇도심경관을 충분히 고려해 지은 롯데쇼핑。

이 건물 역시 조경면에서 거의 영점에 가까운 건물중의 하나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건물전체를 거울 유리(미러·글라스)로 처리한 한양투자금융(17층·乙支路입구)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심에서 시각 공해를 일으키는 건물로 지적되고 있다.

건물 자체의 특성을 살렸다고는 할수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공해를 입게하는 건물이다.

주위의 조경이 산만한 상태에서 옆건물의 간판따위나 행인·차량물결을 비치게 함으로써 무슨 도시미를 강조하려 했을까?

외벽 소재의, 잘못 선택이 이런 우를 저지른 대표적 케이스다.

어느 택시운전사는 이 건물에서 비치는 반사빛으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뒤늦게야 미러·글라스의 시각공해를 인정하고 지금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일체의 미러·글라스를 못쓰게 규제하고 있다.

또 乙支路2가에 있는 한국외환은행(24층)은 전체적으로 수준급에 속하는 건물이나 건물벽의 수평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멀리서 보면 자칫 건물이 비뚤어진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또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는 이색적으로 붉담으로 짓긴 했으나 주변 경관을 고려 안했다는점에서 교회라는 육중한 감을 주기보다도 주위를 어둡게 하고 있다.

설계상의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에 새로 지은 MBC사옥(지상10층)과 한일은행 본점, 삼일로빌딩, 프랑스대사관, 문예진흥원, 楊花津성당(제2한강교부근), 롯데쇼핑, 롯데호텔등은 수준급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69년에 지어져 아직도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삼일로빌딩은 건축당시도 가장 높은 건물이었지만 지금도 손색없는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빌딩은 서울도심의 풍향·풍속등을 감안, 지상 1백20m를 넘으면 상당한 압력을 받을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이하로 하느라 고층이 됐다.

그래서 층거(層距)를 잘게 한 대신 실내 높이를 2m70㎝로 유지해 불편이 없게 한 것이다.

이를위해 철근보를 둥글게 뚫어(컴퓨터처리)이 속에 에어·컨디셔너, 배수관등을 넣음으로써 실내 공간을 최대로 넓혔다.

이는 당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없는 예로 국내건축업계에 화제를 뿌렸었다.

이 건물은 10년이 지났으면서도 새건물처럼 균형이 잡혀있어 그후 들어선 어느 고층건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고있다.

외부재료는 콜텐(Colten)으로 처리해 콜텐색(철판을 자연 부식시킨 색깔)이 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외국서도 아름다운 건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절두산에 위치한 楊花津성당。

한일은행은 79년~81년9월 사이에 지어진 明洞의 명물건물로 꼽히고 있다.

사이트가 좋아 은행이면서도 대 고객 영업장을 2층으로 끌어올린 점이 과감한 면을 보여주고있다.

韓一銀 도심美化·建築美 함께살려서 名物로

文藝會館, 롯데호텔·3·1빌딩등 水準作

도시교통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최대로 넓히면서 코너를 지그재으로 처리해 도심미화와 건축미를 함께 살린 작품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코너의 지그재식과 외장을 자연발색 알루미늄판, 열선흡수(熱線吸收)유리로 부착한 것은 한일은행 특유의 심벌로 되고 있다.

金正澈·金正源 두 형제건축사가 설계한 여의도 MBC사옥은 옥외에 쾌적한 조경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환경개선에 여정을 둔것이 특징이다.

여의도의 기존 가로 패턴(급박감을 주는 건물배치)을 과감히 깨뜨려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숲속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되게 하고있다.

또 공간사가 설계한 문예진흥원 문예회관(구 서울대 자리)은 구시가지에 위치해있지만 안정된 분위기를 주고 있고 대지의 앞면이 거목의 숲으로 이뤄져있어 마치 마로니에 광장과 같은 풍요로운 환경을 느끼게 하고 있다.

건물전체를 붉은 벽돌로 사용해 주위의 푸른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독특한 조형감을 주고 있는것이다.

무대는 프로세니움 아치를 설치해 전통적인 연극을 상연할수 있게 했고 좌석도 친밀감이 있게 하기위해 부규칙한 평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한편 롯데쇼핑건물은 고급 내장재는 모두 수입해다가 붙인 인상을 주고 있다.

메인건물인 호텔은 지붕 끝부분과 밑부분을 조화있게 강조해 품위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특징이라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서울 한복판 도심에다가 자연을 끌어들여 조경을 잘 꾸며 놓은것이다.

이 건물은 일본 오오사까에 있는 이즈미자와(泉澤)설계사무소가 기본설계한것이나 도심의 공간 활용면에서는 우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제2한강교에 있는 楊花津성당과 기념관도 67년에 지어진 것이지만 일본등 외국에서도 좋은 평을 들을 만큼 아름다운 건물로 알려져 있다.

대원군때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자리에 세워진 이 건물은 그 뜻을 살려 장중하면서도 기념비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대사관도 61년작품이면서도 프랑스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품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풍의 건물에 한국적 요소를 풍기기 위해 지붕을 사뿐히 올려놓은 듯한 모습은 마치 덕수궁이나 경회루 같은 한국 고유건축물을 보는 듯하다.

2층건물에 전체대지가 1천2백여평에 불과하나 관저에서 하늘을 보이게 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한것은 특징중의 특징으로 남아 있다.

조경도 정원에다 석등등 50여개의 석조물을 비치해 놓아 1백여년된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들과 잘 어울리게 꾸며놓고 있다.

이 프랑스 대사관 건물은 프랑스 정부의 공로훈장 수상작이고 또 서울시문화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金明源기자>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 광고란

구독신청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週刊한국창간18주년>
할제자가 노름꾼인 모양이다. 1·8가보를 좋아하는걸 보니…。
誠敬輝(釜山)

<안내양은 벨을 두번 울린다>
버스 출발
구람리 (부천시송내동99)

<마누라>
라면을 끓일때도 먹을때도 생각 안나더니 먹고난 빈그릇을 바라보니 몹시 보고 싶어지는구나.
—설겆이가 귀찮아서—
장일 (한국나서회)

★**<귀성열차를 타고>**
고향에 갈 때마다 옆자리는 항상 할머니더랑.
윤석빈 (한국나서회·서울관악구신림2동407)

★**<동물원에 기증하고 싶다>**
여우의 해바닥같은 교활함과 호랑이의 용맹을 겸비한 우리마누라。
멍멍 (한국나서회)

지금 웃는중 落書

<마누라의 취미>
신혼초에는 예술영화를 좋아하고, 요즘에는 괴물을 좋아한다。
따라지(서울도봉구번동406의11)

<마누라>
출출한 아들 (섭종) 뒤엔 어머니가 있고 못난이 남편 (공처가) 뒤엔 마누라가 있다。
피카소 황소 (서울성북구화양동 67의1 민속화실)

<가을낙엽>
결혼하는 처녀·총각은 빨강 단풍잎。결혼못하는 노처녀·노총각은 누런 가랑잎。
꽃가마 (土月文友會·여의서66의40 88。金弗)

<방앗간을 피해 가는 참새들>
방앗간 주인의 술안주는 참새구이였다。
장지순 (서울성북구장위동214의42)

<만삭이된 마누라와 추석귀성열차를 타고>
아기를 열차속에서 분만할것이냐? 시골집에서 분만할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박석지 (따라지·서울도봉구번동466의11)

<긴급명령 1호>
지금 경복궁에서 전국나서인들이 운동 나서를 하고 있으니 청소원들은 잘 닦이는 물걸레를 가지고 긴급출동 바람。
1982년9월19일
경복궁관리소장 빽—
빨리라고 했던 사람

<고급 시계찬 사람>
시계값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당。
멍 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아프다는데>
내가 여태까지 돈 못벌고 출세 않한것은 보기싫은 우리 마누라가 사모님이 될까봐 그런다。
—공처가—
新基海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시범아파트15동10층2호)

<낙서족 처방>
만류하는 마누라동생도 상관치않고 낙서에 미친사람으로 약도없다。
이일재동생 작재 (전국낙서문학회·서울동대문구상봉2동84의38)

珍기록

최고 높이서 떨어진 공을 받은 기록

클리블랜드 (아메리칸 리그) 팀의 포수를 하다가 마이너 리그 샌프란시스코·실즈팀으로 이적한 존·스프링조는 1939년 8월 3일 샌프란시스코만의 트레저·아일랜드 상공 1천피트 상공에 떠있던 비행선에서 낙하된 공을 받았다。그는 5번만에 공을 받았는데 공의 낙하속도 때문에 앞니 4대가 부러졌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 DRIVES ME CRAZY!

우리나라 말에 「미치게 만든다」「미칠 지경이다」라는 표현이있다。물론 점잖은 말속에 들어갈수야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지난주에 50불이나 주고 고친 자동차가 또 고장나서 긴요한 약속시간을 놓쳐 낭패한 미국인 친구가 It drives me crazy.라고 필자에게 말했다。물론 「이차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drive~crazy란 「~을 화나게 한다。미치게 한다」의 뜻이다。같은 표현으로 It drives me bananas. 혹은 It drives me up the wall.이라고도 한다。마지막 문장은 하도 화가나니까 담이라도 타고 싶다는 미국인들의 독특한 표현이다。

A：Why didn't you show up last night?
B：I couldn't help it. My car broke down.
A：Again? You repaired it last week!
B：I know. It's driving me crazy.
A：Have you thought about buying a new car?
B：Of course, but I can't afford it.
A：I had the same problem with my car. It was driving me up a wall!
B：What did you finally do?
A：I finally had to buy a brand new car.
B：How did you afford it?
A：I was able to get a loan at my bank.
B：Maybe that's what I should do.

A：간밤에는 왜 안 나타났니?
B：어떻게 할수가 없었어。차가고장이 났었지。
A：또?지난주에 고치지 않았니!
B：그래。정말 미칠 지경이다。
A：새차 사는 걸 생각해 보았니?
B：물론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여유가 없구나。
A：내차도 역시 그렇게 말썽을 부렸지。정말 미치게 만들더구만。
B：결국 어떻게 했니?
A：새차를 결국 사야했었지。
B：어떻게 살 여유가 있었니?
A：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낼 수 있었지。
B：아마 나도 그렇게해야겠는걸。

break down：망그러지다。brand new：신품의, 아주 새로운。driving me crazy：미치게 만든다의 뜻으로 driving me mad (nuts, up the wall) 모두 같은 뜻이다。loan：대부。 bank loan (은행 대부) turn down：소리를 줄이다。반대로 소리를 높일때는 turn up을 사용한다。예) Turn up the radio. (라디오 소리를 높이시오)

<「보통」이란 뜻의 영어>

우리는 「보통」이란 말을 아주많이 쓴다。한국에 소포를 부치면서 우체국 직원에게 『한국까지 보통며칠이나 걸립니까?』라고하면 이때 「보통」은 「대개」 또는 「대체로」란 뜻이다。

이러한 뜻의 「보통」에 해당하는 영어는 normally나 usually다。소포를 부치면서 『한국까지 보통 며칠이나 걸립니까?』라고말하려면 Normally how long does it take to Seoul?이라고 하면 된다。

ALL I HAHE TO DO IS STUDY ENGLISH.

서울에 있을 적에 필자가 퇴역한 전 주한미군 총사령관 Stilwell장군의 통역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인사가 끝난후 「제가 할일이 무엇인가요?」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렇게 묻자 사령관은 「통역만 하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interpret for me. 라고 하였다。

이때 interpret 앞에는 to 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었다。이와같이 「~해야 하는 것은」 All you have to do is~라고만 하면 된다。

「내일 할일이 많으세요?」 Do you have a lot to do tomorrow? 「아니요, 영어만 공부하면 됩니다。」 No, All I have to do is study English.

A：Do you have a lot to do today?
B：No, All I have to do is study English.
A：I thought you had an appointment with your doctor.
B：Yes, I did.
A：What happened?
B：It was cancelled. He was suddenly called out of town.
A：오늘 할일이 많으세요?
B：아니요。영어공부만 하면 됩니다。
A：전 당신이 의사와 약속이 있다는걸로 알았는데요。
B：네。그랬습니다。
A：무슨 일인 가요?
B：취소 됐읍니다。갑자기 의사가 교외로 왕진나갔읍니다。

※appointment：정해진 시간 약속。promise는 일반적인 약속。예컨대 「의사와 3시에 약속이있다」할때는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doctor at 3.라고 한다。이때의 발음은<어포인트먼트>가 아니고 <어포인먼>이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인가요? ing를 붙여서 What's happening?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Something's happening. 「아무 일도 없다」 Nothing's happening.

cancel：취소하다。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312) 966-4050

책：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 94

지난 줄거리

임사장 마누라는 부정행위를 하고도 당당했다。어차피 죽으려고 각오했기 때문에 부정현장이 들켜도 겁내지 않았다。그녀에겐 할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만한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사건을 털어놓았다。그러나 끝내 그녀는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후퇴했고 총찬은 조여사를 갉아먹는 곰덩의 비열한 행위를 도맡고 나서서 해결해 버렸다。

여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가을 냄새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서부터 시작되었다。남들 다 가는 여름 바다 한번 구경하지 못한 다혜와 나는 모처럼 여행계획을 세웠다。

다혜는 번역문제 때문에 올 여름을 꼼짝할 수 없었지만 나는 괜히 햇살이 무서워서 바캉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강원도 산골에서 무공스님과 함께 태운 살갗은 아직도 검둥이같기만 했다。

『꿍꿍이 없기?』

다혜가 여행계획을 세우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꿍꿍이가 뭔데?』

나는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엉큼하게 굴면 안돼。』

『신혼여행 가는 거 아니니?』

『그럼 안가겠어。』

『그런게 아니고 신혼여행 예행연습 아니냐, 이 말야。』

『고적답사라는 거 있잖아。』

『가을 바다가 고적이니?』

『북적거리는 바다에 가서 바가지 쓰고 못볼꺼 보는거보단 낫잖아。아무도 없는 바다…얼마나 멋져。』

『차라리 설악산이나 속리산같은 덴 가는게 낫겠다。』

나는 다혜가 자꾸 바다쪽을 고집하는게 못마땅했다。가을 바다처럼 머쓱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며 오며 재미지, 안그래?』

『아무도 없는 바다…바다의 늑대란 말은 알겠지。』

『은장도란 말을 아시나요?』

『과일 깎는 칼이라고 압니다。』

『정 못마땅하면 휘둘러서 속리산 좀 돌빠오면 되잖아。』

『좌우간 네 고집 꺾어 앉히려면 장가가서 삼년간 내 피가 마르겠다。』

『난 시집가겠다고 한적없어。시집가서 얽매이느니 차라리 남의 집 식모살이 하겠다。』

나는 다혜의 고집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어쩌면 무슨 짓을 하든 한번만 꺾어버리면 주저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그녀를 훔쳐 버리면…。그땐 달라지겠지。

아무도 없는 밤바다를 보고싶어하는 다혜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긴게 아닐까?

몇해동안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다혜였다。작년 여름엔 동행하기로 하고 그 난리를 치르느라고 나혼자 떠났었다。명식이를 만난지도 퍽 오래되었다。사법고시 이차시험을 치를 때 전화 한마디만 하고 다시 산으로 기어올라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외가집에 가서 번역일을 하며 다혜의 가슴 속에 어떤 외로움이 쌓여 이번 여행을 먼저 제안했을것만 같았다。몇장의 편지로 내가 무지무지하게 보고싶다는 얘기를 전했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애절한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 다혜였다。남들은 끌어안고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사랑하는 걸 확인시키려고 재잘거린다는데 다혜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거라는, 단순한 남자친구로 여길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생기곤 했다。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다혜에게 받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 때려주고도 싶었다。

『좋아。오늘 저녁 지도 놓고 내가 코스를 정할께。』

나는 끝내 우기지 못하고 다혜말처럼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당장 정하면 되잖아。내일 아침 떠날테니까。』

『알았어。서점으로 가보자。』

우리는 팔짱을 낀 채 복작거리는 거리를 지나갔다。팔짱 끼고 걷는 다른 쌍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사내녀석이 괜찮다 싶으면 여자애가 쪽박이었고 여자애가 괜찮다 싶으면 사내애가 비리비리해 보였다。

하나님이 머리 하나는 좋은 것 같았다。그런일은 되게 공평한체 하는 것 같았다。쌍꺼풀 수술한 여자애들이 의외로 많았다。예뻐지는 일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것 같았다。

서점앞엔 사람들이 많았다。책 안읽는 나라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책방마다 사람들이 밀어닥쳐서 술장사 하던 사람도 담배가게 하던 사람도 모두 책방으로 전업할순 없을까? 지하다방도 책방으로 변하고 웬만한 큰건물은 모두 책방 주인 것이 될 수는 없을까?

지도 한장을 펼쳐 놓았다。우리나라 모습이 축소된 지도 위에 우리가 서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보았다。우리는 미세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였다。

다혜의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바다의 野性이 비쳐

『살거야?』

다혜가 비교적 상세한 지도를 들고 물었다。

『사야지。』

『돈내。』

『지도값이야 천번을 내라고 해도 내겠다。』

『마치 애국자 같애。』

다혜가 지도를 둘둘 말아들고 앞장 섰다。

『난 지도만 보면 혼자라도 일본을 쳐들어가고 싶어。』

『중공을 먹는게 훨씬 크잖아?』

『광개토대왕 때 땅만 찾으면 되겠지。그러나 일본은 달라。송두리째 갉아먹고싶어。』

『그럼 찬이가 일본총독되는 건가?』

『물론이지。가장 악랄한 총독이 되겠지。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독한 총독노릇을 해보고 싶어。』

『교과서 왜곡한 애들은 이제 죽었다。』

다혜가 손가락으로 내 목치는 시늉을 했다。

『개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가장 정중하게 대접하겠어。동경 네거리에 대형유리진열장을 만들어서 한발짝도 못나가게 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게 해야지。』

『제발 그런 생각 좀 그만해。쪽발이하고 똑같이 비열해져。우리가 얼마나 신사적인가를 보여줘야지。』

나는 별로 할말이 없었다。다혜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쪽발이들한텐 물리적인 방법으로 창피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애。』

『진정해。우리가 놀아다닐 때는 일본이 아냐。집에 가서 준비해야지。』

『나하고 잔다는 걸 집에서 아니?』

나는 그게 궁금했다。

『몰라。』

『부모님을 속이면 쓰니? 내가 전화할까?』

『할테면 해봐。』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사연을 만들어 갖겠지。』

우리는 일찍 헤어졌다。내일 새벽에 떠나려면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배낭과 등산장비를 가지고 가면 훨씬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았는데 다혜가 반대했다。번거롭게 다니지 말자는 얘기였다。

새벽에 집을 나섰다。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길은 상쾌했다。안개가 색깔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색깔이 없더라도 좋았다。향기가 섞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혜는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간편한 차림새가 경쾌해 보였다。그녀가 들고있는 것은 작은 여행가방 하나 뿐이었다。

『누나가 빌려 줘?』

다혜는 제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다며 버스여행을 제안했었다。

『어차피 내가 차비를 대기로 했으니까 마찬가지 아냐?』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한 걸 알면 갚을 기회는 충분해。맘놓고 갚아。』

『쓸 데 놓고 먹는 건 다 책임지겠어。』

『그건 얌체짓이다。』

『뭐가 얌체야。』

『날 먹구 싶거든。』

『난 식인종하고 여행하지 않겠어。』

다혜는 토라지는 시늉을 하며 길옆으로 내려섰다。

말을 해버렸으니 망정이지, 나는 밤새 그 생각 뿐이었다。정말 이번 여행이 신혼여행 예행연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그래서 고집 센 다혜를 부드러운 여자로 바꾸어놓고 싶었다。

『취소할께。』

나는 웃으며 소리쳤다。

『일본식 취소 아냐?』

『아냐。나의 왜곡을 시인함과 동시에 우방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거야。쪽발이 애들하군 달라。』

『그럼 와서 모시고 가。』

『빌어먹을…。내가 남자로 태어난게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니。』

나는 길가에 서있는 다혜의 손을 잡았다。그녀의 장난기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그러나 그것을 장난이라고 판단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몇년이 흘러가도 몸에 쌓은 성을 결코 헐지 않았다。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한번도 육체를 열지 않았다。고작 열어준 것은 입술 뿐이었다。그녀는 그래서 나에게 더 신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하고 바꿀까?』

다혜의 표정은 장난스럽지만 진지해 보였다。

『정말 바꿔어왔으면 좋겠다。그럼 너도 내 심정을 알거다。』

『나도 마찬가지야。나도 남자가 되고 싶어。그래서 마음놓고 내 맘 내키는 대로 살고싶어。여자에겐 너무 제약이 많단 말야。』

『여자가 훨씬 무슨 일이든 하기 쉬워。뭐든 해봐。걸리는 게 훨씬 적지。』

『그럴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니?』

『무슨 꿍꿍이가?』

『그런 것 같애。』

『앞이나 잘 보고 몰아。』

내 운전솜씨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모양이었다。운전을 배워 차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었다。그래서 알면 병이란 얘기가 있는 것 같았다。

자동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질주하는 차량들의 속도는 백㎞ 아워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고속버스는 무섭게 돌진하는 흉기같아 보였다。짐을 가득 실은 트럭들도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했다。그러나 서울 시내의 일부 택시 운전사들보다는 그래도 나아보였다。교통순경이 없다면 서울은 살생의 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수 없게 만들어진 사회도 문제겠지만 먹고 사는 것을 빙자하여 법의 무법지대를 만드는 택시 운전사들의 횡포는 세계 최고가 아닐수 없었다。

한번 부딪치면 깡통밟은 것처럼 형편없이 우그러지는 자동차를 만들어 돈버는 자동차회사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수원을 빠져나와 아산만으로 이어지는 고속화 도로로 들어섰다。

『경부고속도로처럼 잔인하게 누워있는 도로가 아니어서 좋다。』

나는 새로 만든 도로의 깨끗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운전해볼까?』

다혜의 제안이었다。

『넓고 깨끗한 도로가 나서면 운전해보고 싶지?』

『그런가봐。』

『그러자。』

나는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다혜에게 맡겼다。다혜는 선글라스를 고쳐걸고 운전대를 잡았다。품위 있는 차림새로 운전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시내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그런 여인들에게서 나는 질투를 느끼기도 했었다。

『결혼하고…네가 운전해서 회사에 데려다 주고…。』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다혜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다。

『운전사 월급이 얼만줄 알아?』

『외상하면 되잖아。그럴 땐 임금체불이라고 하든가?』

『누가 결혼한댔어?』

『이거 신혼여행 아냐?』

『그럼 받아 버리겠어。』

『난 생명보험에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는 침묵이란 게 싫은 길손이었다。들판길과 산길로 이어지는 고속화 도로 옆의 경치는 우리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저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언제나 맑은 공기 마시고 언제나 심호흡 좀 하게。서울이란 덴 심호흡조차 하기 무서운데 잖아。』

『그럼 뭐하러 여태 서울서 살았어?』

『글쎄 말이다。밥 벌으려면 서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서울에 주저앉지 않으면 마치 굶어죽거나 낙오하거나 병신 취급을 받을 것 같았어。잘난 체하려면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촌놈이란 사실이 지독하게 서러웠거든。』

나는 회상에 젖어드는 기분으로 말했다。내가 처음 서울이란 땅을 밟고 느낀 것은 삭막한 동토였었다。서울이 척박한 땅이란 것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치기만만한 젊음 가지고 서울이란 도시를 뚫고 나갈수는 없었다。서울은 거대한 괴물같기도 했고 지옥의 한 모서리같기도 했었다。

『노래에도 있잖아。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어쩌면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역설이 아니었을까?』

『그럼 서울구제호소곡이었나。』

자동차는 아산만 둑길을 타고 달렸다。바닷물과 강물로 갈라놓은 둑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우리는 차를 세우고 둑 위로 올라섰다。바다를 막아 뭍으로 만든 인간의 숨결이 담뿍 서려있는 방조제였다。바다는 말없이 출렁거리고 있었지만 인간에게 빼앗긴 삶터의 끄트머리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방조제는 몸으로 바다의 아우성을 막고 서있는 수문장이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지게 만들었다。다혜의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나는 그녀의 야성을 읽었다。한번도 다혜의 몸에서 야성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그저 곱고 순결한 여인으로만 내 눈에 익은 여자였다。이상스런 복장으로 응원단 일을 할 때도 그녀에게서 야성을 느끼지는 않았었다。옷을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 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널 갖고싶다。』

나는 바닷바람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다혜가 바닷바람에게 뭐라고 말하려다 말고 씨익 웃었다。

『난 동물이고 싶다。그래서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단말야。그래서 또 너를 갖고싶어。』

메아리도 없는 내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우린 사람이다。』

다혜가 내 동물적 본능에게 이렇게 쏘아 붙였다。

『나는 사람이다。그러나 사람이란 동물이다。』

바람이 또 그 소리를 안고 나를 굴었다。

다혜는 내 엉뚱한 표정을 사진기에 담고 있었다。나는 한없이 넓은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나 좀 찍어줘。』

다혜가 사진기를 내밀고 계집애처럼, 야성미를 감추고 본능적 여인의 자세로 돌아와 고즈너기 둑길에 앉았다。

렌즈 속에 다혜를 넣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이상스럽게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치솟았다。

그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의문점이 생겼다。시간이 가면 흐트러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도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오히려 더 꼬장꼬장한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동 셔터라는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름 한통을 다 찍어버렸다。그녀는 눈빛이 강렬하게 부딪쳐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부끄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그녀는 용서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다혜, 우리 뜨거운 거 안할래?』

『입술?』

『그래。』

『대낮에?』

『뭐가 어때。』

『그래도…。』

조금 더 떼를 쓰면 될 것 같았다。웬일인지 오늘의 다혜는 녹녹해진 것 같았다。

『우린 사랑하잖아。』

『사랑하고 키스하고 같아?』

『표시잖아。』

『남자들은 여자마다 다 사랑하고 싶은가부다。』

『나름이지。』

『미나, 요즘 뭐해?』

『차암… 내가 보호자니? 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정말 몰라?』

『그래。』

『좋은 앤데。』

『이거 왜 이래?』

『오늘은 소독하지 않았지?』

나는 웃었다。미나와의 입맞춤 때문에 그녀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남은것 같았다。입맞춤 한번 하는 일에도 다혜는 소독하기를 바랐다。

『좋아。오늘은 그냥 하겠어。』

다혜는 미나 얘기만 떠올리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그런 일에 너무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았다。그러나 난 그녀의 순결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

우린 뜨겁게 부딪쳤다。그녀의 입술은 뜨거웠다。둑길 위엔 두 사람밖에 없었다。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클랙슨을 빵빵거리며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하게 솟아…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한칼라현상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발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울식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 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유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정태, 이현우 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차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Store Manager 또는 남자 Helper 구함.
956 Brimorton Dr. (내방바람)

성실한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 923-8737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파타임)구함.
전화 : 977-5743

유경험자 헬퍼 구함.(그로서리)
주말 파타임 학생 헬퍼구함.
전화 : 597-1115

남자, 여자용 옷 재봉사 구함.
3년 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6-3227 FIT LIZHT STUDIO

인쇄 기술자 구함.
Ambassador Printing
전화 : 656-2050 (마리오)

경험있는 남·녀 학생 Store Help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625-1620

Grocery Store Manager 구함.
Stock 인수해야 함. 주매상: $5,000이상. 매매도 가함.
전화 : 487-5000(오전 8시~오전 12시)

★가게에서 Helper해주실
신체건장한 남자분 구함.(다운타운)

★Store Manager 구함(토론토 또는 시외지방)
단, 보증금 요함. 624-5817(Mrs.차)

Donut가게에서 밤일하실 (Full Time)
남자분구함. 저녁 10시-오전8시까지
전화 : 531-2689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직

Store Manager로 일하기 원함.
다년간의 경험 있음.
전화 : 533-2909(Mr. 오)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매매

Barg Sale !
★Dairy Case(우유제품 진열장) 6ft.
★2 Door 냉장고(Store용) 242-4712 Mr. Kim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Aurora-Variety Store, Apartment.
Variety Store.(800 sq.ft.) Basement stock Rm.(800 sq.ft.)
Apartment 4 Rms. + Bath Rm.
Asking price : $165,000 + all new equipment $20,000.
Phone. 889-8654 Mr. Jones.
W. R. Case Realty Ltd.

Grocery & Variety(2층 살림집 2Bed Rms 포함)
리스 : 5년 + 5년 옵션, 렌트(2층포함) : $625(M. 오년간)
주매상 : $3,500 아스킹 : $28,000 전화 : 463-8674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Fast food business for Sale
토론토 중심가에 큰 Mall안에 있음. 윗층으로 120여개의 점포와 640여 아파트와 그리고 사무실들이 있음.
아스킹 $25,000 주매상 : $1,800~$2,000(Short hours)
전화 : 979-3224(Andy)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300 리스 : 5년
전화 : 783-2576

미용실 급매. 드라이어: 6개
의자: 3개. 주인이 아픈 관계로 급매코져 함(좋은 가격)
Gus 전화 : 921-5947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Variety Store 급매
총각이 혼자 새로 Set up한 전망밝은 Variety Store.
살림집 포함. 개인사정으로 급매.
오직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230 Ontario St., St.Catharines, Ont.

Restaurant Tavern for Sale, with property
(Dufferin & Steeles area)
전화 : 661-7767(크리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완전수리, 완전시설 갖춤.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656-0456

Unique Country Store in the Hockley Valley
최근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알려진,
토론토에서 45분 거리의 휴양지.
주유소를 포함한 마켓, 그리고 큰 저택, 4개의 건물,
수영장 포함. 급매코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함.
전화 : 519-822-8530 Betty or Lorne Patterson.
519-824-1123 Canada Trust Realtor.

Basiness & Building for Sale
Grocery Market.
Hwy35번과 Hwy503번이 만나는 지점.
Toronto에서 동북쪽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장소
년매상 : $700,000 Good Mortgage.
전화 : 705-454-3411(Jim)

영어쓰는 지역의 Super Market 팝니다.(몬트리올)
좋은 Lease와 낮은 Rent. 주매상: $16,000이상
윗층 Apt.도 Rent 가능함. 전화 : 514-481-3291 (Mr. 강)

Variety Store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Rent $450 리스: 4년반
Asking: $12000+스탁 전화 : 654-4709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렌트 : $950
주매상 : 6,500. 리스 : 3년+5년(에토비콕지역)
전화 : 621-205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Convenience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코저함. 주매상 $3,500-$4,000. Video 머신에서 주 300불 수입. 1-623-7000 Mr. 박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사무실렌트

사무실렌트(외환은행 3층)
블루아의 중심지 ★면적 : 890 sq.ft.
전화 : 535-880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실비하숙 또는 방세 놓읍니다.
상세문의 오후 5시 이후 전화 : 530-1046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2층 전체 방세놓습니다. 방2개, 응접실, 부엌, 목욕탕, 써니룸, 월 $450(모든것 포함)
전화 : 530-4321, 536-0754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60 (R) 221-2979 김 병 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 청 옹)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쉰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